

↑ 코스피	2706.96 (+1.80)	↓ 코스닥	858.10 (-1.23)
↑ 금리 (미국 9년)	3.466 (+0.075)	↑ 환율 (원-달러)	1364.10 (+9.20)

김승현 회장
5년만에 현장경영
3형제 승계 드라이브
02



민주 175석, 국민의힘 108석...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조국혁신당 12석 등 범야권 189석 민주, 서울 37석 '텃밭' 호남 석권 국민의힘, 서울 19석 PK지역 압승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힘을 누르고 과반이 넘는 압승을 거뒀다. 지역구 254곳 중 161곳을 차지했고, 비례 의석도 14석을 가져갔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수는 189석이다. 국민의힘은 비례를 합쳐 108석을 가져가, 참패는 했으나 개헌 저지선을 확보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개표 상황에 따르면 오전 11시(개표율 100%) 기준 지역구 254곳 중 161곳에서 민주당, 90곳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선됐다.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 진보당은 각 1곳에서 당선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4·6면〉

수도권에서 민주당은 서울 48곳 중 37곳, 경기 60곳 중 53곳, 인천 14곳 중 12곳을 확보했다. 수도권 전체 122석 중 102석을 가져간 셈이다. 여기에 '텃밭'인 호남은 28석(광주 8·전남 10·전북 10)을 모두 석권했고, 제주도 3석을 모두 가져왔다. 과반의 승패를 가른 곳은 중원이었다. 충청권 28석 중 21석(대전 7·세종 1·충남 8·충북 5)을 확보했다. 특히 충북 청주상당은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넘어갔지만, 이번에 다시 확보하면서 충북 8개 지역구

중 절반 이상인 5개를 얻었다.

'디비졌다'고 평가를 받았던 부산경남(PK)에서는 부산 북갑, 경남 김해갑·을, 경남 창원성산만 당선되면서 지난 총선에 비해 2석이 줄어들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양산을 이번에는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울산(6석)에서는 동구에서 최초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성과를 얻었다.

국민의힘은 서울에서는 11석, 경기 6석, 인천 2석을 차지해 19석에 그쳤다. 다만 지난 21대 총선에 비해 서울에서 도봉갑, 마포갑, 동작을 등 3석을 더 확보한 것이 눈에 띈다.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은 것은 '텃밭' PK 지역의 표심이 결집한 덕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부산 18석 중 17석을 차지하면서 21대 총선보다 2석을 더 확보했다. 경남에서는 양산을 차지하고 창원성산을 빼앗기면서 16석 중 13석을 얻었다.

또 다른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은 대구 12석, 경북 13석을 모두 가져왔다. 강원도에서도 8석 중 6석을 가져오며 현상유지를 했다.

이날 11시 기준 비례대표 정당투표 개표율은 100%로,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6.67%,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정당 더불어민주당연합이 26.69%, 조국혁신당이 24.25%, 개혁신당이 3.61%를 얻었다.

이에 국민의미래 18석, 민주연합은 14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길어지는 의료공백... 지쳐가는 환자들

11일 대구시내 대학병원에서 신발을 벗은 한 환자가 의자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지 50일이 넘어가면서 정부와 의료 관계자들은 물론 환자들도 모두 지쳐가고 있다. /뉴스1

2석을 확정지었다. 이밖에 자유통합당 2.26%, 녹색정의당 2.14%, 새로운미래 1.7%의 득표율을 기록해, 봉쇄조항(3%)에 걸려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했다.

한편 지역구 주요 격전지를 살펴보면 '한강벨트'인 서울 마포갑에서는 조정훈 국민의힘 후보가 48.3%로 이지는 민주당 후보(47.7%)를 599표차로 접전 끝에 승리했다. 마찬가지로 한강벨트인 동작을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54.01%)가 류삼영 민주당 후보(45.98%)를 큰 표차로 따돌렸다.

〈2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커버스토리

의대증원, 대화-강행 갈림길 속도감 있는 '돌봄정책' 기대

'여소야대' 교육계 분위기

민주당, 정원 조정 압박 예고 안철수 당선인도 '유예' 주장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지속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올해 중점 추진한 교육·의료 개혁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정부가 '2000명'을 고수하며 추진 중인 '의대 증원'을 두고, '정원 조정'을 제안하는 야당 목소리가 반영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당리당락을 떠나 학생의 성장과 교육본질 회복을 위해 국회가 협력해 달라는 주문이 나온다.

11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 3년 차를 맞아 야심 차게 내놔던 정책이지만, 이번 총선에서의 여당 패배로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강행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정원 정책이 발표된 이후 줄곧 극한 대립을 이어왔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고수하고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가 없다면 대화조차 시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그동안 의대 증원 자체는 동의하면서도 2000명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야당의 총선 승리로 2000명 조정과 의료계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안철수 국민의힘 당선인도 11일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정책 책임자를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안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해야 한다"라며 "정부, 의사, 환우회, 국제기구가 모인 의료개혁 협의체에 전권을 맡겨서 언제 어느 규모의 증원을 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지 결론을 내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의대 증원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가 기존 2000명 증원 방침을 철회하거나 조정한다면 결국 '총선용'이었느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대 증원 추진은 정부가 결정할 사안으로, 법률 개정 등 국회 동의를 필요하지는 않아 정부가 의료개혁을 포기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3면에 계속〉

/이현진 기자 lhj@

금투세 폐지 제동, 밸류업 프로그램 안갯속

거대야당 따른 자본시장 정책 변화 정부·여당 추진 정책 동력약화 예상 野, 금투세 폐지만 동의 가능성 낮아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자본시장 관련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여야가 공방을 벌였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부터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정책 추진 등은 향후 야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11일 금융투자업계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금투세 도입의 향방을 주목하고 있다. 범야권이 190석 이상을 차지한 이번 총선 결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주장해 온 각종 정책에 동력이 떨어질 거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자본시장에서는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포하고, 여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고 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금융상품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만큼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투세의 경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 공약의 실현은 어려워 보인다. 원안대로 2025년 금투세 시행을 주장한 야당이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만에 동의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상황

이다.

또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추진력도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대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미 시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추진력 약화 우려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며 "지난 2일 금융위원회의 인센티브 발표에도 의회 지지가 없이는 추진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여야를 불문하고 기업 밸류업의 목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중장기 방향성은 유지할 것 이란 전망도 나온다.

〈2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윤, 여 참패 후 첫 화두는 '국정쇄신'... 심판 민심 조기 수습 나서
▲야당, 한덕수·대통령실 참모진 사의에 "또 국면전환용" /사진 뉴스스

▲'민심 바로미터' 충북, 이번에도 '족집게 명성' 재확인
▲김태호, 여 총선 참패에 "변하지 않으면 미래 없어" /허정윤 기자 zelkova@



▲조국 "검찰, 김 여사 즉각 소환해 조사해야... 거부하면 특검법 추진" /사진 뉴스스
▲시민들 "여소야대는 정권 '불통' 심판 의미... 협치해야" /이현진 기자 lhj@

김승연 회장, 5년여 만에 현장경영... 3형제 승계 '드라이브'

〈한화그룹〉

경기 판교 한화로보틱스 본사 방문
로봇 기술현황 점검·임직원 격려
복귀시점, 사업재편 시점과 맞물려

“3세 경영체제, 사업영역 분리
‘논란 불씨’ 차단 의지 담은 듯”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5년여 만에 현장경영에 복귀했다. 단순한 경영 재개가 아닌 핵심 계열사 현장에 잇달아 방문하는 등 미래 구상을 본격화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회장이 최근 불거진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3세 경영을 마무리 짓기 위한 것이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1981년 김종희 한화그룹 창업주가 아무런 유언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김 회장과 동생 김호연 빙그레 회장은 형제간 상속 분쟁을 겪기도 했다. 그 결과 한화와 빙그레는 분리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5일 경기 판교 한화로보틱스 본사를 방문해 로봇 기술 현황을 점검하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앞서 지난 3월 29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R&D 캠퍼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달 29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R&D 캠퍼스 직원들과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한화그룹

를 방문한지 일주일만이다. 김 회장이 현장 경영 활동에 나선 것은 2018년 1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베트남 공장 준공식 이후 5년 4개월 만이다.

재계에선 김 회장의 현장 경영 복귀 시점이 그룹 사업 재편이 시작된점과 맞물린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승계의 마지막 퍼즐로 세 형제의 개인회사인 한화에너지와 지주사인 ㈜한화의 합병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당초 김 회장은 세 아들이 맡은 사업 부문을 명확히 나눴다. 장남 김동관 부회장은 방산과 태양광, 항공우주, 석유화학 등 한화그룹의 주력 사업에 집중

하고 있다.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은 금융을 맡아 안정적인 성과를 유지하고 있다. 막내 김동선 부사장은 유통과 호텔업을 맡아 사업 확장에 집중하고 있으며 최근 사업부문 재편을 통해 신설되는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까지 담당하게 된다.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는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떨어져 나온 사이버 보안 업체 한화비전과 반도체 장비 업체 한화정밀기계를 흡수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는 한화시스템, 한화오션만 남는다.

이처럼 김 회장이 사업재편으로 3세 경영에 힘을 실으면서 삼 형제의 그룹

지배력 높이기엔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그 중심에는 한화에너지가 있다. 김 부회장 등 3세 경영인들의 회사인 한화에너지는 한화 지분을 꾸준히 늘렸다. 2007년 김 회장이 아들들에게 지분을 증여할 당시 한화에너지는 한화의 보통주 165만주 2.2%를 취득했다. 이후 2019년과 2020년 한화에너지는 한화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서 지분율 4.42%까지 확대했다. 이후 2021년 한화에너지는 에이치솔루션 역합병 이후 한화의 지분을 추가 취득해 현재 지분율인 9.70%로 끌어올리며 2대 주주에 등극했다. 한화에너지는 김 부회장이 지분

50%, 김 사장과 김 부사장인 각각 25%씩 보유하고 있다. 한화에너지와 한화가 합병할 경우 3형제의 한화 지분율은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구조다.

재계 관계자는 “김 회장이 현장에 복귀한 건 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3세 경영 체제로 접어들면서 형제간 사업 영역을 명확하게 분리해 논란의 불씨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3형제의 한화 지분율이 19%에 이르는 상황에서 무리한 합병 보다는 증여나 시장에서의 추가 지분 매입 등의 방법으로 승계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번 사업구조 재편은 한화그룹이 방산과 인더스트리얼솔루션 사업의 분리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가전 점유율 1위에 9조 반도체 지원금 까지

삼성전자, AI스마트폰 판매 ‘美서 날개’

美 생활가전 시장 매출 점유율 21%
스마트폰 점유율 36%로 16%p ↑
애플은 64%서 48%로 16%p 줄어

미국 정부 반도체 보조금 9조 규모
대미 투자액 440억 달러로 늘릴 듯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걸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스1

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미국 가전 시장의 점유율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전 외에 스마트폰 판매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지난 2월 미국 시장 점유율은 36%로 전월보다 16%포인트(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애플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64%에서 48%로 16%p 줄었다. 애플 뒷받침 미국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호조도 눈에 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말 AI가 탑재된 갤럭시 S24를 세계에서 처음 출시했는데, 지난 2월 판매량 1위에 올랐다. 이 기간 스마트폰 판매량은 1969만대로 전월보다 13% 증가해 애플(18%)을 따돌렸다.

◆美정부 9조 지원에 삼성도 투자 확대 고려

삼성전자는 미국 가전 시장 뿐만 아니라 반도체 시장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미국정부로부터 반도체 보조금을 최대 70억 달러, 약 9조 원가량 받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 8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가 다음 주쯤 반도체지원법

(칩스법)에 따라 삼성전자에 최대 66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미국 인텔과 대만 TSMC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예상됐던 50억 달러보다 30% 이상 늘어난 액수이다.

다만 이는 삼성전자에게 다소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 거액의 투자 지원을 받은 만큼, 미국 투자 규모를 확대해야 할 수도 있어서다. 실제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TSMC는 기존 4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늘리고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을 하나 더 추가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TSMC에 보조금 66억 달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며 지난달 미국 인텔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85억 달러를 지원받았다.

이에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 규모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서 2021년 170억 달러를 투자해 건설 중인 파운드리 생산공장에 더해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총 대미 투자 금액은 44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통해 “삼성전자가 새 반도체 공장과 패키징 시설, 연구개발(R&D) 센터 등을 포함해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추가 투자를 할 예정”이라며 “또 440억 달러 이상으로 투자액을 늘릴 것이며,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대한 투자도 밝힐 것”이라고 보도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정치 1번지’ 종로구 민주 광상언 당선

≫ 1번 ‘민주 175석, 국민의힘’서 계속

역시 한강벨트 중·성동갑에선 전현희 민주당 후보가 52.61%,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47.38%)를 제쳤고, 광진을에선 고민정 민주당 후보가 51.47%를 얻어 오신환 국민의힘 후보(47.6%)에 앞서면서 재선에 성공했다.

‘정치1번지’ 서울 종로에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광상언 후보가 50.92%를 얻어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44.13%)와 금태섭 개혁신당 후보(3.22%)를 이기고 당선을 확정했다.

경기권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경기 성남분당갑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53.27% 지지율을 얻어 이광재 민주당 후보(46.72%)를 누르고 당선됐다. 옆 지역구인 성남분당을에서는 대통령실 홍보수석 출신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51.13%로 김병욱 민주당 후보(48.86%)에게 접전 끝에 승리했다.



광상언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후보가 11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열린 선거사무소에서 당선 소식을 축하하고 있다. /뉴스1

개혁신당 대표인 이준석 후보는 수도권 ‘반도체 벨트’ 중 한 곳인 경기 화성에서 42.41% 득표율로 공영운 민주당 후보(39.73%)를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했다.

‘명품대전’을 벌인 인천 계양에서 민주당 대표 이재명 후보가 54.12%를 얻어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45.45%)를 제쳤다.

/서예진 기자 syj@

“밸류업 프로그램 구체적 정책 눈여겨 봐야”

≫ 1번 ‘금투세 폐지 제동’서 계속

제10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을 비롯해 ▲M&A·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차별 시장 ▲공적기금 운용 시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높은 가중치 부여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밸류업 프

그램과 큰 궤를 함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로 인해 밸류업의 중장기 방향성은 유지될 거라는 기대도 자본시장 내에 있는 상황이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제껏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딱히 나온 정책이 없다”며 “총선 이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고 했으니 이를 눈여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지배구조 개선 같은 정책이 나오면 야권에서 브레이크를 걸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허정원 기자 zelkova@

m-커버스토리

국회 문턱 넘어선 교사들... '교권보호정책' 직접 손본다

교육현장 새바람

교육계 인사 12명 국회 입성
교육 현장 여건개선 등 기대
"학습권 후속·보완 입법 필요"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왼쪽)과 백승아 전 강원교사노조위원장(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이 제22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이들은 모두 초등학교 평교사 출신이다. /뉴시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으로 출마한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과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됐던 백승아 전 강원교사노조위원장(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이 당선됐다. 이들은 모두 초등학교 평교사 출신으로, 그간 교사 출신 의원을 찾아 보기 힘들던 국회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가 초등교사 출신 후보를 영입한 배경은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며 '교권'이 화두가 됐기 때문이다.

◆ '교사 출신' 의원 기대감

정성국 당선인(부산 부산진갑)은 지난 2022년 '75년만에 첫 초등교사 교총 회장'으로 당선된 이력도 있다. 당시에도 유·초·중등 현장을 지켜온 유일한 후보로 나서서 ▲방과후학교 및 돌봄 지자체 이관 ▲교권침해 및 약성민원 즉각 현장출동 ▲교권 관련 법률비용 지원 등 교권 보호와 교사 정체성을 강조하고 나섰던 만큼, 이번 국회에서도 교사 정체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국 당선인은 "대한민국 교육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장기플랜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내며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초등교사 출신으로 강원교사노조위원장을 지낸 백승아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교육계에서도 두 후보가 국회에 입성해 교권보호정책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백 당선인은 국회 입성 후 제1호 법안으로 '서이초 특별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

'서이초 특별법' 주요 내용은 ▲교사의 본질 업무 법제화 ▲학생 분리지도 법제화 ▲학교 민원응대 시스템 법제화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이다.

'교사 출신' 의원에 대한 교육계 현장 기대감은 크다. 교원단체는 입법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교총은 11일 논평을 내고 "서울 서이초 사건을 겪으며 교권 보호 입법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학교현장과 교원을 대변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정성국 전 교총회장이 국회에 입성한 데 대해 축하하고 큰 역할을 기대한다"라며 "교육전문가인 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교사 소신 있게 열정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

하기 위해 누구보다 활발한 입법 활동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도 ▲김준혁 한신대 교수(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부교수(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김대식 동서대 교수(국민의힘, 부산 사상구) ▲강경숙 원광대 특수교육과 교수(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더불어민주당 연합 비례대표) ▲김민진 경희대 교수(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등 교육계 인사 총 12명이 국회에 입성한다.

◆ 교육활동 관련 입법·정책 탄력

이번 총선에서는 초·중등 교육과 달리 고등교육(대학) 관련 공약은 빈약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거점 대학을 육성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는 등 경쟁 체제 자체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기대를 모은다. 또,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원한다는 계획

이다.

국민의힘은 세 자녀 이상 가구는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는 내용 등 일부 복지성 정책만을 제시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양당의 교육 공약에 지방대학 재정확보 방안으로 제시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나입시경쟁 교육 해소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는 평이다. 지방권 한 대학 총장을 역임한 인사는 "10년 넘게 이어지는 등록금 동결과 고물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특히 지방권 대학은 한계에 다다랐다"라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법제화해 안정적인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수도권 중심으로 서열화된 대학체제를 개선할 입법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불거진 '교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에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여남실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 입법과 정책이 속속 마련돼 올해 본격 시행되고 있는데, 학교현장에 정착해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과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교사가 소신 갖고 열정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여건 마련을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은 누가 당선되고 낙선되더라도 존폐가 갈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1면 '여소야대 교육계...'서 계속

與野 '돌봄정책' 공감대 국민의힘 "사교육비 완화" 민주당 "금융교육 강화"

5월 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 요강' 확정을 앞두고, 이전까지 정부와 의료계에서 협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학부모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은 '늘봄학교'에 힘을 썼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1학기 운영 규모를 확대하면서 학교 현장에 부담이 커져 교사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따라 야당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해 돌봄 인력과 공간을 확보하는 '운동네 초등돌봄 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지난해 초·중·고등학생을 둔 가정에서 지출한 사교육비가 27조원을 넘어 서면서 총선에서는 '늘봄' 이외에도 사교육 잡기 위한 정책안이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영유아 무상보육을 내년 부터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태권도·줄넘기, 미술·피아노 학원 등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에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모 안심 초등 학교 통학차량,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 운영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교사들의 금융·경제교육 연수기회도 확대하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체계적 금융교육을 추진한다고 약속했다. /이현진 기자

美·유럽 등 세계시장 안착... '뷰티테크' 사업영역 확장

K뷰티, 브랜드 지형 변화

③ 글로벌 진출

남미·인도 등 다양한 지역 진출 소비자 접점 확대... 매출 급증

K뷰티를 이끄는 차세대 브랜드들은 국내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한국IR협회 기업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전 세계 화장품 시장은 오는 2027년까지 새로운 소비 트렌드의 부상과 유통 채널의 다양화 등을 바탕으로 연평균 4~5%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1일 뷰티 업계에 따르면 비건 뷰티 브랜드 달바는 2023년 연간 매출 2000억원을 돌파했다. 이중 해외 매출액은 446억원이다. 전체 매출이 지난 2022년 대비 38% 증가함과 동시에 해외 매출액이 134% 급증해 달바는 뷰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달바에 따르면 일본에서의 2023년 매출은 지난 2022년 대비 180% 증가해

100억대에 이른다.

비건 미스트 세럼은 일본 온라인 몰 쿠팡과 라쿠텐에서 미스트 부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달바 톤업 선크림도 쿠팡 선크림 부문과 베이스 메이크업 부문에서 1위에 올라 브랜드 영향력을 입증했다.

달바는 2023년 미국에서도 100억원대 판매고를 올렸다. 이는 지난 2022년 대비 230% 성장한 규모다. 미국 아마존에서 미스트 부문 1위에 진입하면서 실적 견인이 이뤄졌다는 것이 달바 측의 설명이다.

북미 시장 중심으로 해외 시장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달바는 올해 1분기에는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으로 진출했다. 오는 2분기에는 멕시코를 비롯한 남미 시장과 인도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연간 매출 2000억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고운세상코스메틱도 올해 K뷰티 격전지로 미국 시장을 꼽고 있다. 고운세상코스메틱의 2023년 연결 기준 매출



에이피알은 지난 3월 14일부터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소호 21 스프링 스트리트에서 브랜드 팝업 행사를 열었다. /에이피알

은 1984억원이다.

이와 함께 고운세상코스메틱은 브랜드 다변화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고운세상코스메틱은 최근 더마 브랜드 '닥터지'와 기능성 클린뷰티 브랜드 '비비드로우'에 이어 색조 브랜드로 '힐어스'를 선보였다. 오는 2030년까지 10개

브랜드, 100개국 진출을 이루겠다는 중장기 목표에 따른 행보다.

앞서 미국 시장 안착을 보이며 본격적인 소비자 접점 확대에 나선 브랜드도 있다.

자연주의 기능성 화장품 마녀공장은 올해 7월 미국 전역의 코스트코 오프라

인 매장 300개에 입점할 계획이다. 마녀공장 2023년 매출액은 1050억원으로 이중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7%다. 특히 아마존, 쇼피, 라자다, 쿠팡, 라쿠텐 등 주요 글로벌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뷰티테크'도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K뷰티를 이끄는 신성장동력이다.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의 경우 2023년 국내외 시장에서 105만 대의 뷰티 디바이스를 판매했다.

2022년 판매량으로 60만대를 기록한 데 비해 1년 사이 약 7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판매량 상승에 따라 뷰티 디바이스 매출 또한 사상 처음으로 2100억원을 넘겼다. 이는 에이피알 전체 매출의 41%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와 관련 에이피알은 미국 시장에서의 활약이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부스터힐러'를 중심으로 뷰티 디바이스의 인기가 지속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해외 진출 흐름이 지속된다면 인지도 제고나 제품군 확장만큼 해외 현지 소비자들과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나 유통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도 브랜드마다 차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野 압승에 ‘연금 개혁’ 향방 주목… ‘소득보장’ 탄력 전망

민주당 주요 공약, ‘공적연금 개혁’
범야권 패스트트랙 지정 기준 상회
재정적 불확실성 등 ‘연금개혁’ 천명

4·10 총선 공약으로 ‘공적연금 개혁’을 제시한 민주당이 22대 국회 의석의 과반을 확보하면서 연금개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한 달 앞두고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을 추진 중인 만큼 연금개혁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전체 의석(300석)의 과반을 넘어 175석을 확보했다.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범야권을 포함한 의석은 189석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기준인 180석(전체 의석의 60%)을 상회한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당시 주요 공약으로 ‘국회 공적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연금개혁안 도출 및 입법 추진’을 제시했다. 국회 의석의 과반을 확보하면 민주당이 주도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한다는 공약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지난 1월 31일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다.

개별 공약은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세대별 공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년 대상 공약으로는 ▲국민연금기금 고갈 등 재정적 불확실성 해소 ▲세대 간, 지역 간 공적연금 부담과 보장의 형평성 제고 ▲국민연금 납부 예외연령층의 최초 납부 전액 지원 및 이후

50% 지원(청년기후연금 도입) 등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의 구조 개혁을 통해 세대별 납입액·수급액 불균형 및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재정 고갈을 예방하고,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는 27세 미만 의무소득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해 미래 소득 불확실성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중장년 대상 공약으로는 ▲중소기업을 우선으로 국민연금 수급 연령까지 정년 연장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장 확대 등을 내걸었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정년 연장을 통해 법적 정년인 60세와 수급 개시 연령(65세(2033년 기준) 사이의 소득 공백 해소를 추진하고, 기존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5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퇴직 지원도 확대한다.

노년 대상 공약으로는 ▲적정 노후 소득 보장 ▲고령자 대상 주택연금제도 확대를 제시했다.

공적연금 개혁을 통해 최소한의 노후 소득을 확보하는 한편, 주택연금 수급자가 담보 주택 이용이 어려울 시 주택을 공공임대료 전환해 해당 주택임대료를 연금액에 더해 치료·요양·양로 비용으로 지원한다는 공약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연금 개혁안은 현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한 달 앞두고 추진 중인 국민연금 모수 개혁(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

하는 방안)의 결과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임기 내 합의에 실패해 모수 개혁이 좌초되면 이후 개혁안에는 구조 개혁뿐만 아니라 재정 안정화 방안도 포함하는 강도 높은 개혁이 요구된다. 연금개혁이 불발될 가능성도 커진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모수 개혁안이 좌초될 가능성은 작다. 여야 모두 21대 임기 내 모수 개혁 완수라는 목표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월 연금특위 출범식에서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공론화위가 4월 10일 총선이 끝나면 바로 공론화 결과를 제출, 특위가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낼 계획이다”라며 “여야 지도부 모두 되도록 근시일에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김성주 민주당 연금특위 간사도 “비록 선거가 있다지만 개혁안이 만들어진다면 민주당은 총선 이후에도 정치적 타협과 결단을 통해 바람직한 연금개혁을 하자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민생 고통 덜고 국가적 위기 해소에 최선 다할 것”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등 해단식
수도권·충청·호남 등 싹쓸이 성과
“민생정치로 국민 기대 성원 보답”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 이어 2연속 단독 과반 확보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이재명·이해찬·김부겸 삼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1일 몸을 낮추고 공을 들 냈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선대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선대위 해단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세 명의 위원장 외에도 윤영덕·백승아 더불어민주당연합 공동대표도 함께했다.

이재명 위원장은 유권자가 준 뜻을 모아 국가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전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께서 행사하신 한 표, 한 표에 담긴 소중한 뜻을 우리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서 받들겠다”면서 “민생의 고통을 덜고 국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적 위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 이후에 당과 당선자들이 더욱 더 겸손한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위원장은 “당의 승리나 당선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면서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국민 주권의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일상적인 정치 활동에서 반드시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거듭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민생정치로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부연했다.

이해찬 위원장은 만약에 민주당이 오만하면 다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개혁 과제를 의지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정치인들이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어떻게 국민들이 여당을 심판하는 뜨거운 의지를 보인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이번 승리에 도취해서 오만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국회에서 180명을 쫓는데 무엇을 했냐는 소리를 그동안 많이 들었지 않나. 정말 이번에 이렇게 쫓는데도 못하면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해찬 위원장은 “말도 하나하나 조심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겸손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할 적에 깨어있는 국민들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꽤 의석을 많이 잃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인은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은 것”이라며 “투명하게 모든 것을 해나가는 그런 자세로 공직생활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부겸 위원장은 민주당이 잘 해서 압승을 했다기보다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컸기 때문이라고 총선 결과를 진단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정부의 흔들리는 국정 방향을 바로 잡히도록 제 역할을 하겠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실과 내각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전면적인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안에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국가적 과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대화 정치의 복원”이라고 제안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민주당 규제 통한 안전망 확충 중시에… IT업계, ‘노심초사’

DSA패키지 쫓는 것 아니냐 우려
선허용·후규제 방식 큰 타격 전망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IT업계의 주요 입법 이슈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IT 분야는 선허용·후규제를 통한 기술 주권 확보에 집중하는 여권과 발전보다 규제를 통한 안전망 확충을 중시하는 민주당 등 야당간 의견차가 확연하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선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관련 규제가 더욱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11일 메트로경제 취재 결과 IT 분야와 관련해 최근 정부의 선허용·후규제 방식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선 최근 유럽연합(EU)에서 본격 시행 중인 강력한 플랫폼 규제 법안인 DSA패키지(DMA/DSA법)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IT업계 내에서 쟁점적으로 논의되는 법안은 ▲인공지능(AI) 기본법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이 있다. AI 기본법은 제정, 플랫폼 관련 법안은 저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하 초거

대AI협의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1대 국회 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AI 기본법은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AI 연구 및 활용의 기본 토대를 목표로 한다. 이미 주요 AI 선도국에서는 관련 법안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유럽연합이 지난 3월 AI 기본법(AI Act)을 유럽의회를 통해 통과시키고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도 AI 부작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의무화 정책을 발표했다. AI의 비약적인 발전 이후 가짜뉴스 및 AI 활용 범죄의 범람 및 AI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등이 대두 됐다.

또 개발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인력 확충 또한 업계에서 계속 요구했지만 근거 법안이 없었던 만큼 대응과 지원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

초거대AI협의회 관계자는 “AI 기본법은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법이자 안전한 AI 환경 구현을 위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는 법”이라며 “시민단체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율하는 등 합의 가능한 수정안을 다시 도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더욱 넓은 범위의 IT 기업들까지 향후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 및 입점업체 간 관계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다. 반면 플랫폼

경쟁법은 일정 크기 이상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독과점의 사전 방지를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기업들을 포함해 쿠팡 등 초대형 e커머스 기업까지 모두 포함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하려했던 법안이 정권 임기 종료와 함께 무산됐고, 이번 정부 들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가 거센 반발에 한발짝 물러섰지만 최근 EU가 시행 중인 관련 법안과 미국 정부의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 등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리며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플랫폼 업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여전히 설파 중이다. /김서현 기자 seoh@



BUILD UP

빌드업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빌드업은 목표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빌드업은 고객과 비즈니스 파트너, 사회가
서로 신뢰하는 겁니다

새로운 소재로 진화하는 반도체와 배터리
디지털과 리사이클링이 결합된 친환경 기술
시로 더 가까워진 에너지 트랜지션까지

**SK의 솔루션으로, SK의 팀플레이로
내일을 빌드업 합니다**



‘명룡대전’ 이재명·‘광철대전’ 안철수 승기… 앞날 ‘청신호’

이재명, 총선 주인공… 전성시대 올해 전당대회 재도전 여부 주목
안철수, 다시 대권 기반 다져
“정부에 대한 매서운 회초리 경험 민생문제 해결 등 책무 제대로 못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계양구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인천 계양구 선거사무소에서 개표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차기 대권주자들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인천 계양구와 경기 성남 분당갑은 각각 현역 지역구 의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힘 당선인의 승리로 끝이 나면서 두 사람의 앞날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당선인은 자기 지역구 선거에다가 전국 지원 유세, 재판까지 참석했음에도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에게 낙승하고 민주당의 압승까지 이끌어 이번 총선의 주인공이 됐다.
당 내에서 이재명 당선인에 반기를 들던 인사들은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정당으로 옮겼기 때문에, 비로소 이대표의 전성시대가 찾아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사히 2년간의 당 대표 임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뉴스1

기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 이 당선인이 올해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재도전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이 당선인이 현재 대장동·백현

있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힐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위험 요소다.
낙선한 원희룡 후보는 여론조사 상이 대표를 바짝 추격하는 흐름을 만들 어냈지만,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구에서 자신을 어필한 ‘한 방’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선인은 ‘친노(친 노무현) 적자’라고 불린 이광재 후보를 이기면서 4선 고지에 올랐다. 대선 후보로 출마해선 왕좌에 오르지 못했지만, 이번 총선 승리로 다시 한번 더 대권의 도전할 기반을 닦았다는 평가다. 여론 조사와 출구조사에서 이 후보에게 따라잡히는 듯한 흐름을 보였던 안 당선인은 실제 개표 결과 여유 있게 이기면서 여당의 중진으로 자리매김했다.
안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경험했다”며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책무를 지닌 것이 정부 여당이다. 그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해 선

명성을 부각시켰다.
총선을 앞두고 의정 갈등이 조정이 안되자 해결책을 제안한 바 있는 안 당선인은 11일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안 당선인은 “국민께서 이만하면 됐다 하실 때까지 정부여당의 국정기조 대전환과 낮은 자세로 혁신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 당선인은 대통령실에 ▲의대 증원 1년 유예와 단계적 증원 방침 마련 ▲의대증원 정책 밀어붙인 책임자 경질 ▲총선 참패 원인 제공한 성찰과 건설적 당정관계 구축을 요구했다.
반면, 고베를 마신 이광재 후보는 지난 2022년 제8회 지선에서 강원도지사 선거 패배 이후 국회 사무총장을 지내다가 다시 제22대 총선에 도전했으나, 패배하고 말았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경기 남부에서도 보수세가 강한 분당갑의 선거 구도를 바꾸지 못하며 다음 행보를 위한 숙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한동훈 “선거 결과 책임지고 비대위원장직 물러날 것”

한, 대통령실과 각 세울 기회 놓쳐
행보 제한적… 당권 잡기 어려워
尹 공동책임론엔 “오롯이 제 책임”
정치 신인이지만 여당의 총선 위기론에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에서 패배했다. 한 위원장은 총선 다음날인 11일 비대위원장직 사퇴 선언을 했다. 국민의힘이 총 108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총선을 전면에서 지휘했던 한 위원장은 향후 대권 도전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검은 정장 차림으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면서 “국민의 뜻을 존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또 한 위원장은 “야당을 포함해 모든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부탁드립니다”면서 지지자들과 낙선자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민들께 드린 정치개혁의 약속이 중단 없이 실천되길 바란다”며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11시 기준(개표율 100%) 기준으로 지역구에서 90석,

국민의미래 18석을 확보했다. 여당이 총 108석을 얻으면서, 개헌 저지선은 지켜냈지만 예상 밖의 참패를 당한 셈이다.
108석을 얻은 국민의힘은 범야권 200석을 막아냈지만, 범야권에 180석을 내주면서 향후 각종 법안 처리에 대한 주도권을 뺏길 것으로 보인다. 180석을 확보할 경우 각종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이 가능하고, 200석은 대통령 탄핵소추 및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효화, 개헌 등을 할 수 있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게 나타나, 140석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해 제1당 탈환도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하면서, 여당은 지난 총

선과 비슷한 수준의 의석을 얻게 됐다.
이같은 패배의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있지만, 한 위원장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한 위원장 취임 후 여당이 대통령실과 각을 세울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1월 중순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으로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고, 이를 거절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한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갈등 수습되자 한 위원장은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표하지 않았고, 대통령실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회갈

테러’ 발언 국면에서도 한 위원장은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해, 수직적 당정관계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음을 보여줬다. 게다가 고물가에 따른 ‘대파’ 이슈에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도 급락했다.
결국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한 위원장의 다음 행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됐다. 선거 패배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전당대회에 나서 당권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의 공동책임론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는) 제 책임”이라며 “(패배) 원인은 여러분(취재진)이 분석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

‘누리호 개발 주역’ ‘한강벨트 이북 유일 보수’… 초선정치인 기대감 ‘술술’

野 황정아, 김동아, 모경중 당선인
與 김재섭, 주진우, 우재준 당선인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일꾼으로서 ‘첫’ 쓰임을 받는 초선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인공위성을 만드는 물리학자’로 불리며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인재영입된 황정아 대전 유성구를 당선인은 59.76%를 득표해 ‘이재명 대표 사당화’ 현상을 지적하며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을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황 당선인은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일하며 누리호 개발의 주역으로 주목받았는데, 누리호 3차 발사



황정아 대전 유성구을 당선인, 김동아 서울 서대문갑 당선인, 모경중 인천 서구병 당선인,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 주진우 부산 해운대갑 당선인, 우재준 대구 북구갑 당선인

당시 세계 최초로 판대 비행하는 도요셋 인공위성 4기 탑재 설계와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김동아 민주당 서대문갑 당선인도 올해 36세의 청년 정치인으로 초선으로서 역할이 막중하다. 민주당은 서대문갑 후보를 만 45세 이하 청년 오디션으로

뽑았는데, 최종 3인 경선 결과 김 당선인이 공천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21년에 민주당에 입당,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알려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재판 초기에 법률 지원을 담당한 바 있다.
이재명 당 대표를 그림자처럼 따라다

니는 수행비서를 맡았던 모경중 민주당 인천 서구병 당선인도 34세에 국회에 입성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모 당선인은 지난 2019년 경기도에서 학력과 경력을 전혀 보지 않고 지방별정직 5급 상당의 경기도지사 청년비서관을 뽑는 채용 공고에 도전해 ‘10대 1’의 경쟁률을

뚫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21대 의원인 인재근 전 민주당 의원이 내리 3선을 한 지역구에서 이기며 주가를 올렸다. 한강벨트 이북에서 유일하게 보수 정당 소속으로 당선된 김 당선인은 가뜰이나 취약한 국민의힘의 수도권 기반을 다질 청년 정치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주진우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당선인도 국회에 입성했다.
TK(대구·경북)에선 35세 청년 정치인이 금빛지를 달았다. 우재준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당선인은 박정희 민주당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리고 초선 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우 당선인은 20대 시절,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 직인수위원회에서 청년특위로 활동한 바 있다. /박태홍 기자

Very Special
FRESH BERRY



논산딸기주스
 Nonsan
 Strawberry Juice
6,900

논산딸기 베리라떼
 Nonsan Strawberry
 Berry Latte
6,900

논산딸기
 바나나스노우
 Nonsan Strawberry
 Banana Snow
6,900



부동산 부진에 가계대출 1년 만에 감소세 전환

3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 1099조
한 달 전 보다 1조6000억 줄어
주담대 5000억 늘어 증가세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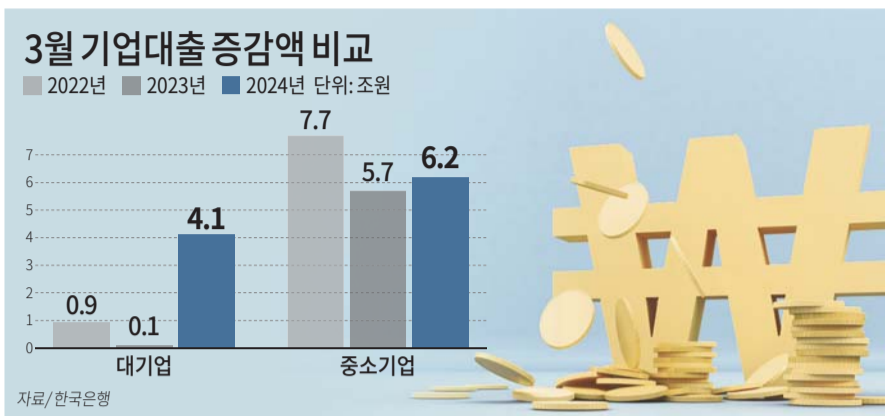
은행, 가계 대신 기업 대출 늘려
대기업대출 잔액 4조1000억 증가

1년 만에 가계대출이 감소세로 돌아
섰다.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주택매
매 거래가 줄고, 여전히 대출금리가 높
아 부담이 이어진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24년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
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98조6000억원
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1조6000억원 줄
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4월 2조3000억원 증가한
것을 시작으로 10월 6조7000억원까지
증가했다. 12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 주담대 5000억원 증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달 주택담
보대출(주담대)을 받는 비중이 평균치
를 밑돌았다. 주담대 잔액은 860조5000
억원으로 전달 대비 5000억원 늘었다.
2022년 3월 2조1000억원, 2023년 3월 2
조3000억원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4
분의 1 수준이다.



원지한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
은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인한 거래 감
소, 고금리 부담, 총부채원리금상환비
율(DSR) 규제 강화 등이 맞물리며 주
담대를 찾는 이들이 줄었다"며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DIG) 정책대출이 자체재원으로
공급되고 전세자금 수요도 감소하면
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고 말했다.

통상 주택도시보증공사(DIG) 정책대출(보증
대출)은 매년 2월부터 5월까지 자체 재원으로
대출을 공급하다 재원 소진시 은행 재원을
통해 이차보전방식으로 대출을 공급한다.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비중도 줄었지만, 평균 은행에서
이차보전방식으로 공급한 대출(월평균 3조원)
이 집계되지 않으면서 증가폭이 크게 축소
됐다는 분석이다.

카드론 등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기타대출 잔
액은 23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10월
추석연휴를 포함한 긴 연휴시기를 제외
하곤 2021년 12월부터 감소했다.

◆ 기업대출, 10조4000억원 증가

반면 기업대출은 연말을 제외하고 지
속 증가했다. 지난달 기업대출 잔액은
1272조8000억원으로 한달 새 10조
4000억원이 늘었다. 가계대출로 수익이
줄어든 은행들이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을 늘리고, 업황 회복으로 기업들의 자
금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기업대출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달 대기업대출 잔액은 260
조4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4조1000억
원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은 2022년 3월
9000억원, 2023년 3월 1000억원 늘었

다. 올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1012조4000억
원으로 6조2000억원 늘었다. 원 차장은
"은행권의 대출영업이 확대되고, 중소
법인의 법인세 납부수요가 발생해 증가
폭이 확대됐다"며 "은행들의 기업대출
확대전략과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맞물
리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 시중자금, '수시입출식예금'으로

시중의 자금은 은행의 수시입출식예
금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이상의 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이
사라지고, 금리인하 예상 시점이 불확실
해지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일
시적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은행의 수시입출식예금잔액
은 926조8000억원으로 한달 새 48조
5000억원 늘었다. 매년 3월 수시입출식
예금잔액은 2022년 16조3000억원,
2023년 12조5000억원 늘었다. 올해 3배
가량 증가한 셈이다.

반면 정기예금은 같은 기간 13조
3000억원 감소한 99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원 차장은 "은행의 자금조달
유인이 약화되며 정기예금이 감소하고
있다"며 "지난달 정기예금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의 대규모 만기도래가
이어지며 상당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카드 News

NH농협카드 2023 연도대상 진행 남서울농협 등 대상

NH농협카드가 지난해 우수실적을
달성한 임직원 및 사무소를 격려했다.

◆ 우수 직원 시상, 자긍심 고취

NH농협카드는 서울 용산구 노보텔
엠버서더에서 '2023 NH농협카드 연도
대상'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여영
현 상호금융 대표이사, 윤성훈 NH농
협카드 사장 등 임직원이 참석했다.

2023년도 시상식은 ▲개인 부문
(164명) ▲사무소 부문(14개소) ▲명
예의 전담(2명) 등으로 분류했다. 개인
부 부문은 문인제 NH농협은행 포스코대
로지점 과장보와 오성근 서울농협
과장보가 대상을 수상했다. 사무소 부
문 대상은 ▲남서울농협과 ▲북부산농
협 ▲원주농협 ▲순천광양축협(이성기
조합장) ▲광양농협 ▲진북농협 등이
받았다.

KB국민카드 라이프 서비스 확장 KB페이 범용성 홍보

KB국민카드가 KB페이의 범용성을
홍보했다.

◆ '결제서 라이프까지 KB페이' 강조

KB국민카드의 배우 박은빈이 출연
한 신규 광고를 공개했다고 11일 밝혔
다. 이번 광고는 짧지만 중독성 강한
메시지를 반복한다.

광고 구성은 상황을 설정해 묻고 답
하는 형식이다. 'KB페이' 광고만의 차
별화 자산이란 설명이다. ▲쇼핑 ▲항
공·호텔 ▲내차 관리 ▲골프 레슨 ▲운
세 보기 등 라이프 서비스 확장성에 초
점을 맞췄다. 결제에서 생활영역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음을 전달한다.

신규 광고와 프리퀀 영상은 KB국민
카드 공식 유튜브 채널과 케이블TV 등
에서 만날 수 있다.

신한 비자카드 로얄캐리비안크루즈 온보드 크레딧 제공

신한카드가 비자(Visa) 브랜드카드
로 크루즈를 예약하면 포인트를 제공
한다.

◆ 20만원 수준의 포인트 지급

신한카드에 오는 30일까지 로얄캐리
비안크루즈 한국총판에서 '온보드 크
레딧' 제공 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
혔다.

온보드 크레딧이란 승선 전 사전 예
약 및 선내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의미한다. 행사 기간 내 로얄
캐리비안크루즈에서 크루즈 예약완료
후 신한 비자 카드로 1000달러 이상을
결제하면 150달러의 온보드 크레딧을
지급한다.

혜택은 2024년 이내 출발하는 로얄
캐리비안크루즈와 셀러브리티크루즈
일정이라면 모두 적용받는다.

/김태환 기자 kdh@

/김정산 기자 kimsan119@

美 소비자물가 지속 상승... '금리인하 신중론' 우세

3월 CPI 전년 동월 대비 3.5% ↑
6개월來 가장 높아 예상치 상회
"금리인하 이르면 하반기 시작"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상반기 금리인
하 기대감이 낮아졌다. 미 연방준비제
도(Fed·연준) 위원들 역시 금리인하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전문가
들은 금리인하 시작을 이르면 하반기
로 전망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
는 지난 10일(현지시간) 3월 CPI가 전
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다고 밝혔
다. 지난해 9월(3.7%)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시장 전문가들의 예
상치(3.4%)를 상회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
한 근원 CPI 상승률도 전월 대비 0.
4%, 전년 동월 대비 3.8% 올라 시장 전
망치(0.3%, 3.7%)보다 높았다.

미 CPI 상승률은 지난해 9월 3.7%
에서 10월 3.2%, 11월 3.1%로 떨어지
면서 순조롭게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 기조를 이어갔다.

지난해 연말에는 이르면 3월부터 기
준금리 인하를 시작 할 수 있다는 기대
감이 높아지면서 채권값과 주가가 동
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4%로 다시 상
승전환 했고, 올해 1월 2%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과 달리 1월 3.1% 기록, 2
월 3.2%, 3월 3.5%를 기록하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CPI는 연준이 향후 금리 인하 시점
을 가늠 할 수 있는 지표로 시장의 관심
을 받는다.

또한 미 연준이 같은 날 공개한 3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서도 금리인하
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의사록은 "회의 참석자들은 강한 경
제 모멘텀을 가리키는 지표와 실망스
러운 인플레이션 지표에 주목했다"며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안
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더 강한 확
신이 들기 전까지는 기준금리를 인하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언
급했다

이어 "모든 참석 위원은 경제가 예상
경로로 움직일 경우 연내 어느 시점에
선가 긴축 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하

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연준이 물가 상승률의 목표치를 2%
로 제시한 만큼, 6월 금리인하는 사실
상 물건너가 이르면 하반기 시작할 것
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는 연준이 오는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81.3%, 9월 인하 가능성은
66.2%로 예상했다.

연내 금리인하 횟수 역시 9월 0.25%
p 인하 1회로 제시해 이전보다 금리인
하 기대가 크게 낮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연준은 오는 5월, 6월, 7월, 9
월, 11월, 12월까지 6차례의 FOMC 회
의에서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민간아파트 분양가 24% 급등... '청약 옥석가리기' 심화

원자재값 상승에 건축비 인상

최근 원자재값과 인건비 인상 등으
로 공사비용이 오르면서 분양가가 급
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민간아파트 2월 평균 분양가가 1년 만
에 24% 이상 상승한 가운데 수요자들
사이에서 '지금이야 가장 싸다'라는 말이
유행처럼 돌면서 청약 옥석가리기가
심화하는 모양새다.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
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
르면 지난 2월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

는 3.3m²당 1770만7800원으로 집계됐
다. 전월분양가(1743만7200만원) 대비
2%(27만600원) 오르며 12개월 연속 상
승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동월 분양가
(1560만2400만원)와 비교하면 약 14%
(210만5400만원) 올랐다.

2월 서울 민간아파트 3.3m²당 평균
분양가는 3780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
분양가(3044만5800만원) 대비 24%
(735만5000원) 올랐다. 전용면적 84m²
기준 새 아파트의 분양가는 13억원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HUG가 발표하는 월별 평균 분양가

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
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격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급등한 것으로 분석
한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시멘트 1톤
(t)당 가격은 지난 2020년 6월 7만5000
원에서 2021년 7월 7만8800원으로 오
른 이후 2022년 2월 9만2400원, 11월
10만5400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11월
에는 11만1000원으로 추가 인상됐다.

원자재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기본형
건축비가 크게 인상됐다. 올해 3월 기

/김태환 기자 kdh@

철강업계, 시황악화에도 R&D 확대 친환경 생산 등 '위기 속 기회' 모색

고부가 제품 개발 등 경쟁력 집중

**포스코 3년 연속 R&D 규모 확대
현대제철 '프리멜팅 전기로' 투자**

철강업계가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위기감 확산에도 '위기 속 기회'를 찾기 위해 미래동력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철강사가 건설업계의 시황 악화와 함께 중국과 일본의 저렴한 가격 공세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건설은 철강업계의 전방산업이다. 그러나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시작된 부동산 시장의 둔화로 인해 업계는 건설 분야에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라 신규 건설 수요가 줄면서 건축구조물 제품의 수요도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제철 봉형강 부문의 지난해 매출은 8조9299억원으로 전년 대비 13.2% (10조2823억원) 감소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수주 실적은 17.4%

줄었다.

설상가상으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중국과 일본의 철강제품들이 국내 철강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내 철강업계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도 연구개발(R&D) 분야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차별화된 고부가 가치 제품 개발로 경쟁력 강화를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내 철강업계 '빅2'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지난해 R&D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는 최근 3년간 R&D 투자 비용이 매년 약 1000억원씩 증가했다. 지난 2021년 4754억원에서 지난 2022년 5789억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는 6000억원을 넘어섰다. 매출 대비 R&D 투자 비용도 늘었다. 지난 2021년 0.62%에서 지난 2022년 0.68%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0.79%까지 올랐다.

현대제철도 최근 3년간 R&D 투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R&D 비용으로만 2540억원을 투입했다. 지난 2021년 2053억원에서 지난 2022년 2456억원에 이어 지난해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매출 대비 R&D 비중도 지난 2021년과 2022년 각각 0.9%에서 지난해 1.0%로 올라섰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 생산 체제 강화에도 매진한다. 특히 업계는 전기로에 투자해 수소환원제철 기술 완성을 준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2월 6000억원을 투자해 전남 광양제철소에 연산 250만톤 규모의 전기로 공장을 착공했다. 2026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프리멜팅 전기로' 투자를 진행한다. 프리멜팅 전기로는 기존 전기로를 활용해 저탄소화 된 쇳물을 고로 전공 공정에 혼합 투입해 저탄소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설비다. 동국제강 또한 지난 2010년부터 전기로 '에코아크'를 운영 중이다. 향후 전력효율을 한 단계 높은 '하이퍼 전기로' 공정연구를 2028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경영 환경이 어려움에도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적극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칠레 산티아고에서 9~14일(현지시간) 열린 국제 항공우주전시회 'FIDAE 2024'에 참가한 현대위아 전시장 모습 /현대위아

현대위아, 칠레 등 중남미 방산시장 공략

국제 항공우주전시회 참가
첨단 차량형 무기체계 소개

현대위아가 중남미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전시회를 통해 글로벌 수출 확대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위아는 오는 14일까지 칠레에서 열리는 국제 항공우주전시회 'FIDAE 2024'에서 신형 박격포 등 첨단 차량형 무기체계를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이번 방산 전시회에서 '기동형 화포'를 전시용 모형 형태로 선보이며 이 무기체계를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이 가운데 105mm 자주포는 경량화를 통해 차량에 탑재해 운용할 수 있는 대

표적 무기체계로 꼽힌다. 이 무기는 기존 자주포 대비 사거리를 늘리고 무게를 줄여 기동성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

현대위아는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칠레에 화포 체계 수출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105mm 견인포를 칠레에 수출한 경험을 토대로 신규 사업 역시 확대할 예정이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남미 지역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인 FIDAE에서 처음으로 현대위아의 기술력을 알리게 돼 기쁘다"며 "한국과 칠레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된 만큼 칠레 시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현대모비스, 'EVS37' 참가

'모비온' 국내 첫 선... 크랩주행·제로턴 시연

전동화 신기술·신제품 전시공간 마련
전기차 관련 논문 수시 건 발표 예정

현대모비스가 오는 23일부터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7회 세계 전기자동차 학술대회·전시회(EVS37)에 참가해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력을 선보인다. 전동화 신기술 및 신제품 중심의 별도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다수의 연구원들이 학술대회 발표에 나선다.

11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EVS37은 세계 전기자동차협회(WEVA)와 아시아태평양전기자동차협회(EVAAP)가 주최하고 한국자동차공학회(KSAE)가 주관하는 행사다.

현대모비스 연구진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전기차 관련 논문 수시 건을



현대모비스가 EVS37에서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미래 모빌리티 실증차 '모비온'.

발표한다. EVS37 참가사 중 가장 많은 인원이 발표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모비스는 전기차 핵심인 구동시스템은 물론 배터리, 안전부품, 시스템 플랫폼,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에 이르는 폭넓은 분야의 연구 성과를 공개한다. 또 업계 최우선 과제인 전기차 모터

최적 냉각 설계, 저마찰 도로에서의 차량 제어, 차량용 컴퓨터 분리 및 방열 구조, 자율주행 시뮬레이터 활용 인포테인먼트 시뮬레이션, 전기차 후륜조향장치(RWS) 활용 방안 등 다양한 논문들이 발표된다.

특히 전시공간에서는 화제의 실증차 '모비온(MOBION)'이 국내에 처음 공개된다. 모비온은 차세대 전기차 구동 기술인 e코너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 라이팅 기술이 탑재된 콘셉트카다. 올해 초 세계 최대 규모 정보기술(IT)·가전 박람회인 CES 2024 현장에서 전시 첫 날 약 1만명의 구름 관중을 끌어 모았다. EVS37 현장을 찾은 관객에게 옆으로 가는 크랩 주행과 제자리에서 차체를 회전하는 제로턴 등을 시연한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차 아이오닉6, 獨 자동차매체 전기세단 평가 '1위'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트)

파워트레인 항목 최고점 획득

현대자동차의 중형 전기차 세단 아이오닉6가 유럽 자동차 전문 매체에서 실시한 비교 평가에서 최고 경쟁력을 입증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6가 독일 아우토모토 운트 슈포트가 최근 진행한 중형 전기 세단 비교 평가에서 스웨덴 폴스타와 중국 니오의 경쟁 모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우토모토 운트 슈포트는 아우토 빌트, 아우토 자이퉁과 함께 독일 3대 자동차 매거진으로 꼽힌다. 독일은 물론 유럽 전역의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매체다.

이번 비교 평가는 아이오닉6, 폴스타 2, ET5 등 유럽 중형 전기 세단 시장에서 경쟁 중인 3개 모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바디 ▲안전성 ▲

편의성 ▲파워트레인 ▲주행성능 ▲친환경성 ▲비용 등 7가지로 구성됐다.

아이오닉6는 바디와 안전성, 편의성, 파워트레인, 친환경성 등 5가지 항목에서 1위를 기록했다. 총점 582점으로 폴스타2(576점)와 ET5(519점)를 제쳤다. 특히 아이오닉6는 항속거리와 전비, 소음 및 진동 등과 관련된 파워트레인 항목에서 평가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인 104점을 받았다. /양성운 기자

기아, 픽업트럭 시장 도전... 차명 '타스만'

다재다능 '라이프스타일 픽업' 강조

호주 최남단에 위치한 영감(inspiration)의 섬 타스마니아(Tasmania)에서 유래기아가 글로벌 픽업트럭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다.

기아는 11일 브랜드 첫 픽업의 차명 '타스만(이하 타스만)'을 공개했다. 타스만은 호주 최남단에 위치한 '영감(inspiration)의 섬' 타스마니아(Tasmania)와 타스만 해협에서 유래했다.

다양한 자연환경과 풍요로운 문화가 조화를 이룬 타스마니아 섬은 멋진 풍경과 다양한 야생동물이 어우러지며 지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이로운 경관을 자아낸다.

기아는 차명 타스만에 대담한 개척



기아 픽업트럭 차명 타스만.

정신과 때문지 않은 자연의 신비로움이 공존하는 섬의 이미지를 투영해 일과 삶 어디서든 새로운 도전과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다재다능한 '라이프스타일 픽업'을 강조했다.

기아는 중형 픽업 타스만을 2025년부터 국내와 호주, 아프리카와 중동 등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한국지엠 쉐보레, '온스타' 국내 서비스

트랙스 크로스오버 적용... 2년 무상

한국지엠 쉐보레가 GM의 글로벌 커넥티비티 서비스 온스타를 2025년형 트랙스 크로스오버에 적용, 국내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특히 고객 경험 확대를 위해 국내에서는 2년간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한국지엠은 트랙스 크로스오버 고객들을 위해 이달 8일부터 시작한 온스타 서비스를 쉐보레, 캐딜락, GMC 등 향후 국내 시장에 출시되는 GM의 신차 고객들을 위해 단계적으로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온스타의 다양한 서비스 기능 중 국내 고객들이 선호할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도입, 업계 최고 수준의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제공해 나간

다는 계획이다.

온스타는 글로벌 시장에서 560만 명이 넘는 유료회원을 보유한 GM의 커넥티비티 서비스다. 온스타 서비스 이용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의 원격 제어부터 차량 상태 정보, 차량 진단 기능 등 보다 확장된 디지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한국지엠 커뮤니케이션 총괄 겸 최고 마케팅책임자 윤명옥 전무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는 온스타는 글로벌 시장에서 GM이 주도해 온 자동차 커넥티비티 서비스의 결정체"라면서 "고객에게 국내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자동차 커넥티비티 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삼성,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韓 누적 판매 1만대 돌파

빨래·건조 한 번에 가능해 인기
공간 활용성·맞춤형 AI 등 만족 ↑
연간 에너지 비용 업계서 가장 ↓

삼성전자가 지난 2월 국내 출시한 ‘비스포크 AI 콤보’가 국내 히트 펌프 방식 세탁건조기 시장에서 처음으로 1만대 고지에 올라섰다.

1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비스포크 AI 콤보는 출시 3일 만에 1000대, 12일 만에 3000대에 이어 지난 주말 1만대 판매를 돌파했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AI 콤보가 세탁과 건조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점과 설치 공간을 약 40%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의 기대를 만족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비스포크 AI 콤보는 세탁 용량 25kg, 건조 용량 15kg의 대용량으로, 키 사이즈 이불 빨래도 가능하다.

특히, 일체형 제품이면서 고효율 인버터 히트펌프 기반으로 단독 건조기 수준의 건조 성능을 구현했다. 셔츠 약 17장인 3kg의 빨래를 건조할 때 드는 건조 시간과 에너지 사용량은 일반 건조기와 유사한 셈이다. 연간 에너지 비용은 5만1000원으로 국내 업계에서 가



삼성전자 모델이 삼성스토어 대리점에서 국내 누적 판매량 1만대를 돌파한 ‘비스포크 AI 콤보’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장 낮은 수준이다.

일반 건조기 기준으로 비교하면 삼성전자 20kg 용량 건조기의 1회 건조 시 소비전력량은 1989.1Wh, 1kg당 소비 전력량은 147.5Wh, 연간 소비전력량은 318.3kWh로, 이는 국내 업계 최저 수준이다. 연간 에너지 비용 역시 5만 1000원으로 국내 업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밖에도 비스포크 AI 콤보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AI 절약모드’까지 AI 성능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또 스마트싱스로 연결된 다른 가전 제어도 가능하며 7형 플러치 LCD 패널에 컬러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원하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어도비, 비디오 생성형 AI 개발 박차

분당 3달러에 영상 구입 시작

어도비가 인공지능(AI) 텍스트-비디오 생성형 AI 구축을 위한 비디오 조달에 나섰다. 어도비의 합법적 AI 학습 데이터 구입이 현 저작권 논란이 끊이지 않는 AI 업계에 경종을 울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블룸버그는 11일 어도비가 사진가 등 주요 작품 제작자들에게 120달러의 가격으로 사람들의 다양한 행동을 촬영한 비디오를 구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어도비가 요구하는 영상의 구체적인 자료는 발, 손 등 신체 부위 뿐 아니라 감정이 드러나는 사람들의 클립과 물체와 상호작용하는 내용으로 과도한 노출 및 폭력성과 선정성 없는 콘텐츠다.

지난 1년간 어도비는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를 포함해 창의적인 전문가를 위한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에 생성형 AI 기능 추가에 공들여왔다. 최근에는 프롬프트(명령어)를 이용해 생성

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자사 소프트웨어에 이식했다.

다만 현재 어도비는 동영상 생성형 AI의 위험성과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관해서는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동시에 해당 기술의 직접적인 SW 활용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은 만큼 개발 단계에서 폐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어도비의 대규모 학습 데이터셋 구매는 과거 오픈AI가 공개한 동영상 생성형 AI ‘SORA’를 비롯해 다양한 생성형 AI에서 발견된 저작권 위반 사례와 비교된다. 실제로 현재 오픈AI의 방대한 학습 데이터셋의 출처는 기밀사항으로 공개된 바 없다.

오픈AI 최고 기술책임자 미라 무라티는 지난달 WSJ와 인터뷰에서 “SORA가 학습한 데이터셋의 출처는 밝힐 수 없다”며 “구글의 유튜브와 메타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서 사용자가 생성한 비디오에 관한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LG, 스마트병원 사업 ‘속도’

GE헬스케어·한국MS와 업무협약
디지털 플랫폼 등 첨단 솔루션 제공

LG전자가 스마트병원 솔루션 사업에 속도를 낸다. LG전자는 최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GE헬스케어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스마트병원 공동 발굴 및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스마트병원은 병원 운영과 진료에 IT 기술을 접목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병원이다. 컨설팅 기업 C

MI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병원 시장 규모는 지난 2022년 약 410억 달러에서 오는 2030년 1533억 달러로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첨단 디지털 의료기기 ▲병원 운영의 효율을 높이는 디지털 솔루션 ▲안정적인 IT 의료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시스템 등 스마트병원에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협업을 한다.

LG전자는 현재 진단용·수술용·임상용 등 총 13종의 의료용 모니터를 비



(왼쪽부터) 김용덕 GE헬스케어코리아 대표이사, 장익환 LG전자 BS사업본부장, 조원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이사. /LG전자

롯해 디지털 엑스레이 검출기, 디지털 사이니지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중진공, 中 中 小 低탄소 경영 전환 돕는다

탄소중립 스마트공장 참여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저탄소 경영체계 전환 촉진을 위한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11일 중진공에 따르면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 ICT 기반 탄소저감 공정 혁신, 고효율 설비개체 등 중소벤처기업 탄소저감에 효과적인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금형, 주조 등 뿌리기술 14개 업종과 화학제품, 식품 등 고탄소 배출 상위 10대 업종이다. 1차 서면과 2차 대면으로 구성된 기술성평가 및 현

장확인을 거쳐 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선정기업 대상 전문가의 현장방문을 통해 탄소저감 스마트공장 구축방안을 수립하고, 구축지도 컨설팅 등 스마트공장 구축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이외에도 지원기업의 ICT 기반탄소저감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과 이와 연계된 제어·계측 시스템 및 에너지 감축에 효과적인 고효율 설비 교체까지 제공한다.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이달 25일까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지멘스 DISW, 韓 스타트업 협력 강화나서

오영주 장관, 토니 헤멜건 CEO 면담
창업진흥원·지멘스 DISW간 협약 재체결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멘스가 ‘지중해’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430억원을 투입, 스타트업 25곳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오영주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토니 헤멜건(Tony Hemmelgarn)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지멘스 DISW) 최고경영자(CEO)와 면담을 갖고 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멘스 DISW와 지난 2021년부터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 제조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발굴·육성하기로 합의하고 지중해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20개사 안팎의 스타트업을 함께 지원해왔다.



창업진흥원과 지멘스 DISW와의 업무협약식에서 (왼쪽 2번째부터)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병준 지멘스 DISW 한국 지사장, 최열수 창업진흥장 직무대행, 토니 헤멜건 지멘스 DISW CEO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진원

‘지중해’는 ‘지멘스와 중기부가 함께 힘을 모아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22년에는 협업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창업진흥원과 지멘스 DISW 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운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오영주 장관은 토니 헤멜건 CEO와 지중해 프로그램의 협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중해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지원 규모를 기존 20개사에서 25개사 내외로 확대했다.

/김승호 기자 bada@

CJ대한통운, 패키징 신기술로 ‘물류 혁신’

앱스 등 고객사 물류 적용

CJ대한통운이 첨단 패키징 기술로 물류업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사내 ‘패키징혁신센터(PIC)’가 선보인 차세대 신기술을 연이어 상용화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택배 상자 내 제품 파손 우려까지 차단하는 등 물류 혁신을 이끄는 모습이다.

CJ대한통운은 패키징혁신센터에서 개발한 의류 특화 폴리백 패키징 설비 ‘앱스(APPSS) 어패럴 자동 포장 시스템’과 ‘원터치박스&송장’을 최근 고객사 물류에 적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앱스는 원단 위로 의류를 일렬로 배

열해 이동시키면서 감싼 뒤 포장까지 자동 마무리하는 설비다. 앱을 이용하면 자동화에 따른 물류비 절감뿐 아니라 재활용 플라스틱(PCR) 포장재, 가위가 필요 없는 ‘이지컷(easy-cut)’ 적용 등으로 분리배출의 불편함도 줄일 수 있다.

패키징혁신센터는 경기 화성 동탄 물류단지에 조성한 연구조직이다. 내부에는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압축·적재·진동 시험을 위한 패키징 안전성 연구실 ▲운송 과정의 온·습도 환경을 재현한 물류환경 시험 연구실 ▲자동화설비 검증실 ▲샘플 제작실 등이 들어서 있다.

/김승호 기자

CARM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2024.04.26(금)

13:00~17:00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연사-



Robert Coppes
University Medical
Center Groningen



Ryuichi Okamoto
Tokyo Medical and
Dental University
(TMDU)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임승원
현 애니젠 고문
전 한국R협회의 상근부회장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최미혜
한국거래소
차장



정형구
미래드생명과학
이사

■ 행사개요

•행사명: CARM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일 시: 2024년 4월26일(금) 13:00~17:00

•장 소: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1층)

•주 최: (사)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후 원: 충청북도

•등 록: 운영사무국 M&C기획 02-721-9818 선착순, 사전접수만 입장 가능

포럼에 참가한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Registration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2:30~13:30	사전등록 (13:00~13:30 MP Tea 타임)
개회 및 축사	13:30~13:50	이특주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섹션1	13:50~15:3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연구 및 현황 강연1: Robert Coppes 교수 (동시통역제공) "Organoids for Post-Radiotherapy Regeneration of Salivary Glands, the RESTART study" 강연2: Ryuichi Okamoto 교수 (동시통역제공) "Clinical application of patient-derived organoids" 강연3: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의 현황과 전망" 강연4: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인간전분화능 줄기세포 유래 오가노이드 원천 및 활용 기술 개발"
브레이크타임	15:30~15:45	커피 브레이크 및 자유네트워킹
섹션2	15:45~17:0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시장과 전망 정형구 미래드생명과학 이사 "재생치료제 동향 및 오가노이드의 역할" 임승원 전 한국R협회의 상근부회장 "바이오벤처기업의 IPO 전략" 최미혜 한국거래소 차장 "찾아가는 기술특례 상장 설명"
폐회	17:00	정부 관계 부처 및 금융기관 전문가

신용잔고 20兆 코앞... 증권사 '조삼모사' 이자율 꼼수 주의

한 달 새 1兆 급증... 6개월 중 최고 반도체 활황과 함께 투자심리 자극 일부 증권사, 기준금리 인하 폭만큼 가산금리 임의 상향... 최종금리 유지

개미(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가 급증하면서 신용용자거래 잔고가 20조원을 코앞에 뒀지만, 증권사들의 '이자율 꼼수'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19조 463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8일 18조 8451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사이에만 1조 가량이 급증했으며, 최근 6개월 중 최고치다. 반도체 활황과 함께 국내 증시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투자심리가 다시 자극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코스닥 시장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잔고가 급증했다. 이날 기준 신용거래 잔고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



/유투이미지

은 반도체 팹리스 기업 텔레칩스(9.12%)였으며, 이외에도 유리기판 업체인 HBT테크놀로지, HB솔루션도 각각 8.87%, 8.78%씩 차지했다. 신용거래용자란 개인 투자자가 담보를 잡고 주식 매수 자금을 증권사에 빌리는 것으로, 신용거래용자잔고가 늘수록 '빚투'가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증권사들의 '이자장사'는 여전히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용용자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쳐 최종금리가 정해지는데, 이때 기준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등 CD금리를 사용한다. 여기서 기준금리

는 증권사들이 조정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가산금리는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 일부 증권사들은 이를 이용해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폭 만큼 가산금리를 상향해 최종금리를 유지시키는 '조삼모사'식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다만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CD금리) 변화에 따라 가산금리도 조정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업계 입장에서는 각자마다 조달하는 금리가 다를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일괄적으로 CD금리로 통일해 버리다보니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10%에 육박하는 신용용자 이자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감원이 산정 체계를 개편했고, 지난달부터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기준금리(CD금리) 통일, 기준금리의 전월 또는 직전 기준월 대비 0.25%포인트 이상 변동시 대출금리 변경 심사 실시 등이다. 이와 함께 증

권사들의 이자율 자율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비교공시 방안도 실시되고 있지만 사실상 제자리걸음으로 보여진다. 최근 들어서는 메리츠증권(0.69%포인트), KB증권(0.63%), NH투자증권(0.5%포인트), 미래에셋증권(0.11%포인트) 등이 기준금리가 하락한 만큼 가산금리를 올린 바 있다.

김대중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기준금리는 고정되지만 가산금리의 경우 개인마다 신용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다양하게 책정될 수 있으나, 산정 기준의 변화 등은 미리 고시만 된다면 한두 달 안에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며 "가장 좋은 방향은 금융기관들이 기준금리를 주고, 가산금리는 시장경제원칙에 맡기는 것이나 증권사들의 개정안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처벌 규정이나 우호 점수 부여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고금리 지속에 美 장기채 ETF 수익률 하락

美30년스트립액티브 12.71% ↓ 경기지표 양호... 금리인하 기대 줄어 단기채 ETF 상품 투자, 비교적 안전

올해 들어 미 국제 금리가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미 장기채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 시장 내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미 장기채 ETF 투자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TIGER 미국채30년스트립액티브(합성 H)는 12.71% 하락했으며, ACE 미국채30년국채액티브(H)는 9.54% 떨어졌다. 이외에도 SOL 미국채30년국채액티브(H)(-8.26%), KODEX 미국채울트라30년선물(H)(-8.09%) 등이 크게 내렸다. 같은 기간 레버리지 상품인 ACE 미국채30년국채선물레버리지(합성 H)도 17.41% 하락했다.

이같이 미국 장기국채 ETF가 부진한 것은 경기 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줄어든 영향이

다. 국제 금리는 올해 들어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10년물 금리는 이미 4.5% 선을 돌파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년물 금리 역시 5% 선을 위협하고 있다.

앞서 투자자들은 올해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에 미국 장기채 ETF 저점 매수에 나섰다. 금리가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잔존기간이 짧은 채권보다 수익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들어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의 순자산은 4190억원 증가했으며, TIGER 미국채30년스트립액티브(합성 H)의 순자산은 2152억원 늘었다. ACE 미국30년국채선물레버리지(합성 H)(88억원), SOL 미국30년국채액티브(H)(44억원), KODEX 미국채울트라30년선물(H)(14억원) 등에도 자금이 유입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시점이 미뤄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 발표된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장은 9월 금리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를 기대하게 됐고, 두 번째 금리인하 시점은 내년 1월로 예상된다"며 "이번 3월 CPI 쇼크로 연내 3번 금리인하 기대가 1~2번으로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단기채 ETF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금리가 이제 단기간에 빠질 것 같지는 않다는 시각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리인하 시기가 늦어지는 시기에는 미국 국제 단기채 ETF에 관심을 갖는 편이 낫다"며 "해당 ETF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변동 자체는 높지 않은 대신에 배당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단기채 ETF에 접근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KB증권 "삼성전자, 가장 저렴한 AI 주식"

PBR 평가가치·주가격차 해소 전망

KB증권은 11일 삼성전자에 대해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인공지능(AI) 주식이라고 평가했다. 투자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11만원을 제시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삼성전자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5배로 경쟁사인 마이크론(3.1배), SK하이닉스(2.1배) 대비 각각 52%, 29% 할인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연초 대비 주가는 엔비디아(75%), 마이크론(44%), SK하이닉스(29%)가 상승한 반면 삼성전자는 6% 상승에 그쳐 글로벌

AI 주식 중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 중"이라고 설명했다.

KB증권에 따르면 현재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고대역폭메모리(HBM3) 대량 양산을 통해 공급이 개시된 상태다.

김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3분기부터 HBM3E와 HBM3E 동시 공급이 예상된다"며 "D램 전체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분기 9%에서 올해 4분기 18%로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해 하반기 D램 평균판매단가(ASP)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감산이 집중됐던 DDR4 공급 부족은 심화되고, DDR5 가격 상승으

로 DDR4와 가격 차이가 30%까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신규 라인 증설이 HBM, DDR5에만 집중되면서 감산이 지속된 D램 라인이 2분기부터 풀 가동한다고 가정해도 레거시 제품의 총 생산능력은 지난 2022년 4분기 최대 생산능력의 75% 수준에 불과하다"며 "올 하반기 레거시 제품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2분기 엔비디아 HBM3E 최종 인증, AI 반도체 매출비중 확대 전망, 레거시 D램 공급부족 심화 등을 고려하면 삼성전자 PBR 평가가치(밸류에이션)과 주가격차는 단기 해소될 전망"이라며 "AI 산업 최선호주로 삼성전자를 권한다"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

"주총 논의결과, 투자자에 적시 제공해야"

금감원, 정기보고서 공시서식 개정

앞으로 상장사들이 주주총회 논의 결과를 투자자에게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주주제안 제기 사실부터 처리 경과 등 관련 내용을 정기보고서(사업·분반기)에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측은 "최근 자본시장에서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환원 등에 대한 투자자 관심 증대로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명확한 작성지침 부재 등으로 주주제안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주주총회 전·후로 제출되는 사업·분반기 정기보고서에 충실히 기재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주제안권 제기 사실과 주주제안의 주총안건 채택 여부 등 처리경과, 주주총회 결과 및 논의내용 등 일련의 과정을 담아야 한다.

개정된 공시서식에 따르면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내역을 사업보고서(주총 1주 전 제출) 등 정기보고서 제출일까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주주제안권 제기사실 ▲주주제안 내용 ▲주주제안의 주총 안건 채택 여부 ▲주주제안 처리경과 ▲주주총회 결과 ▲논의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접수된 주주제안권 행사현황을 빠짐없이 공시해야 한다. 현행 공시기준상 사업연도말부터 주주총회 전까지 기간은 사업보고서 작성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당해 연도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주주제안권 내역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내역을 사업보고서(주총 1주 전 제출) 등 정기보고서 제출일까지 내역을 모두 기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주주총회 전 주주제안 제기 사



금융감독원은 주주제안 제기 사실부터 처리 경과 등 관련 내용을 정기보고서(사업·분반기)에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주제안권 행사자와 안건내용, 주주총회 목적사항 포함여부 및 거부사유 등 처리경과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기재 시 행사자, 주총 목적사항(안건) 포함여부, 거부사유, 진행경과 등으로 세분화하고 표 형태의 작성양식을 제공하여 회사의 주주제안 처리경과와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개선했다.

또 정기주주총회 직후 제출되는 분기보고서부터 주주제안 안건을 포함한 주주총회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분기보고서부터 주주총회 사항을 기재하도록 해서 투자자들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결과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결과에는 안건명, 결의내용, 안건별 주요 논의내용 정보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주주제안 안건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안건별 주주총회 주요 논의내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해서 표 형태의 작성양식을 제공해 주주총회 결과정보를 충실히 제공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에 대한 처리경과 및 주주총회 논의내용이 적시에, 충실히 공시된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주주총회 진행과 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모두 도움이 되고 선진 자본시장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허정원 기자 zelkova@

수출기업 10곳 중 6곳, 고금리에 허덕

“수익으로 대출이자 감당 어려워”

무렵, 1분기 무역업계 금융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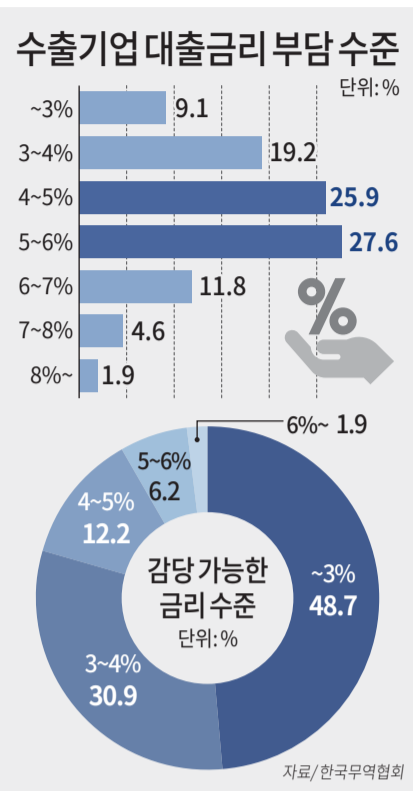
매출 10억 미만 기업은 73% 달해 63% “전분기대비 자금상황 악화” 기업 80% “금리부담 완화” 건의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수출기업 절반 이상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내기도 버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더 컸다.

한국무역협회가 11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무역업계 금융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자비용이 영업이익과 같거나 초과한다’고 응답한 기업 비율은 57.3%에 달했다.

같은 응답비율은 작년 7월 49.8%에서 9월 51.5%, 12월 53.5%에 이어 3분기 연속 증가했다. 특히,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수출기업의 경우 응답비율이 72.9%에 달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기업들이 적용 받고 있는 대출금리는 5% 전후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으나,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고려한 감당가능 금리수준은 3%인 것으로 나타나, 초과 금리부담에 따른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기업들의 자금사정도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63.3%는 ‘전 분기 대비 자금사정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지난 12월 조사(60.1%)보다 3.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됐다’는 응답은 3분기 연속 증가했다. 수출기업들은 금융 관련 주요 현안

으로 ▲기준금리 인하(83.5%) ▲해외 부동산 시장불안(31.8%)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불안(21.5%)을 꼽았다. 건의사항으로는 ▲금리부담 완화(79.7%) ▲대출·신용보증 한도확대(58.5%)가 지속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규모가 적정하거나 충분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42%로 지난 조사(2023년12월, 24.2%) 대비 17.8%포인트 증가해 정부의 금융지원 확대 노력에 대한 기업의 인식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 중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제도(복수응답)는 ▲중소기업 가산금리(49.1%)·고금리(40.1%) 감면 ▲보증지원 확대(34.9%) ▲신산업 우대자금 지원(34.7%) 등으로 파악됐다.

이인호 무역부회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한계에 다다르기 전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무역협회는 역대 최대 수출 달성에 정책금융이 효과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기업들의 의견을 수시로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1분기 자동차 수출액 175억 달러... 2.7% ↑

산업부, 역대 1분기 중 최고 기록 하이브리드차 수출 37% 증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라인.

올해 1분기 자동차 수출이 역대 1분기 중 최고를 기록했다. 내수 판매가 주춤한 가운데, 하이브리드차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175억달러(수출량 69만대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1분기 실적 중 최고치다. 지난 2월 52억달러로 감소했던 수출액도 3월 62억달러를 기록하며 빠른 회복세다.

3월 수출과 내수 특징은 하이브리드차(PHEV 제외)의 약진이다.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37% 증가한 8억5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내수 시장에서도 전년동기 대비 24% 성장한 4만대가 판매되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하이브리드차의 국내의 판매 호조세는 부품업계에 안정적 일감을 공급하는 등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3월 자동차 생산은 36만5000대로 전년동월 대비 10.8% 감소했다. 다만, 이는 작년 월평균 생산량인 35만4000대를 상회하며 올해 1~3월 생산 중 최고치다.

1년 전보다 자동차 생산이 감소한 이유는 전기차 전환을 위한 공사(기아 광명2공장)와 조업일수(-1.5일)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3월 자동차 내수 판매는 14만6000대로 전년동월 대비 12.0% 하락해 전체 내수 판매는 감소세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차(+24%)와 전기차(+16%) 판매가 두 자릿수대 증가율로 호조세다.

이런 영향으로 3월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18.6% 증가한 6만1000대로 기존 최고 실적(2023년11월, 5.8만대)을 경신했다.

산업부는 “사상 최고 수출실적(709억달러)을 기록했던 지난해 자동차 업계 수출 모멘텀이 올해에도 좋은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업계 애로 해소 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중견기업, 2분기 수출·생산·투자 전망 상승

산업부·중견련, 경기전망조사 3분기 연속 직전분기 대비 올라

중견기업들은 2분기 수출·생산·투자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경기 전반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봤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견기업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2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견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2월26일 ~ 3월11일까지 진행됐다. 전망지수가 100이상이면 긍정, 100미만은 부정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수출 98.1(0.5p ↑), 내수 91.9(1.4p ↑), 생산 98.0(1.4p ↑), 설비투자 99.4(0.2p ↑), 영업이익 89.9(2.1p ↑) 등 다수 지표에서 3분기 연속 직전

분기 대비 상승했다. 다만, 세계경제둔화와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경기 전반에 대한 전망은 92.3(0.4%p ↓)으로 직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다.

수출은 1차 금속·금속가공(100.6, 7.0p ↑), 기타 제조업(105.4, 9.5p ↑)이 긍정 전망으로 전환했고, 전자부품·통신장비(103.5), 식음료품(100.3), 도소매(101.2) 업종도 긍정 전망을 유지하는 등 수출 전망은 소폭 상승했다.

내수는 식음료품(118.3, 15.7p ↑), 운수업(100.2, 12.9p ↑)에서 큰 폭의 긍정 전망 상승으로 직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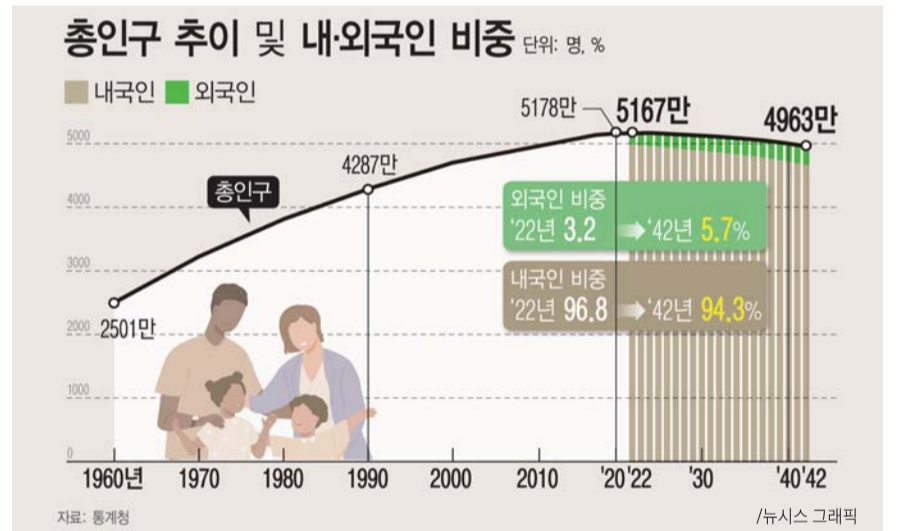
생산은 식음료품(112.5, 10.0p ↑), 자동차(103.8, 3.9p ↑)가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설비투자의 경우 1차 금속

(103.9, 8.4p ↑), 자동차(100.5, 5.4p ↑) 업종의 상승에 힘입어 각각 소폭 상승했다. 전자부품(116.8, 13.1p ↓)도 직전 대비 하락에도 불구하고 긍정 전망을 유지했다.

중견기업들은 내수 부진을 가장 큰 경영애로 요인으로 응답한 가운데, 제조업은 원자재 가격상승(34.7%)을, 비제조업은 인건비 상승(44.0%)을 두 번째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경기 전반의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 어려움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금융, 인력 등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금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 성장사다리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2042년 외국인 인구비중 6% 육박할 듯

통계청, 2022년 기준 인구추계 내국인 96.8%→94.3%로 감소 외국인 285만명으로 5.7% 추산

은 같은 기간 3.2%(165만 명)에서 5.7%(285만 명)로 늘어난다는 추산이다.

우리나라 총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는 2042년 6%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2022년 기준 외국인 비율은 3% 초반을 기록했다. 이는 내국인 인구는 크게 줄고 외국인 인구는 증가세를 지속할 것이라 통계청 전망에 따른 추산이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에 따르면 내국인 인구는 2025년 이후 10년간 0.26% 줄어든다. 이후 2042년까지는 감소세(-0.44%)가 더 확대된다.

이에 반해 외국인 인구는 각 기간 계속 늘어난다. 다만 해당 두 기간 증가세는 +2.15%, +1.64%로 점차 둔화한다.

이 결과, 총인구 대비 외국인 구성비는 20년새 2.5%포인트(p) 올라갈 전망이다. 내국인 구성비는 2022년 96.8%(5002만 명)에서 2042년 94.3%(4677만 명)로 낮아진다. 외국인 비율

한편, 내국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가 65세이상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9만 명, 2030년대에는 연평균 53만 명 감소한다.

2022년과 2042년 내국인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0.5%에서 55.0%로 15.5%p 줄어든다.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7.8%에서 36.9%로 두 배 수준이 된다. 저출산 현상으로 0~14세 유소년인구 비중은 11.7%에서 8.1%로 한 자리 수로 떨어진다.

65세이상 내국인 고령인구는 2025년 1000만 명을 넘고, 2036년 15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내국인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2년 17.8%에서 2025년 20%를 넘고, 2035년 30%를 넘어선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유소년인구+고령인구)를 나타내는 내국인 총부양비는 2022년 41.8명에서 2042년 81.8명으로 증가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국세수입 7.2조 증가... 나라살림은 ‘적자’

기재부, 2월 누계 총수입 97.2조 총지출 12.5조 늘어 127.1조 집계

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늘어나며 총수입이 7조2000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6조 원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지난 2월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7조2000억 원 증

가한 97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 및 기금수입이 모두 증가한 영향이다.

총수입 진도율은 전년대비 0.2%포인트(p) 오른 15.9%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견딜 것으로 예상한 총수입 612조2000억 원 중 15.9%가 1~2월 중 견뎠다는 뜻이다.

국세수입은 58조 원으로 3조8000억 원 늘었다. 국세수입은 지난해 10월 증가한 이후 11월과 12월에 감소한 뒤 올해 1월

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한 바 있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소비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3조7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3000억 원, 1000억 원 줄었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12조5000억 원 증가한 127조1000억 원이었다. 신속집행 등 지출증가로 연간계획 252조9000억 원 중 63조 원이 2월에 집행되면서다. 집행률은 24.9%로 전년대비 4.2%p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9조9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산업전환고용안정위 신설... “해고·근로조건 향상 등 지원”

고용부, 근로자·사업주 의견 수렴
산업전환법 시행령 제·개정안 의결
직업능력개발훈련·재취업 등 실시

정부가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해고 등 고용안정 문제에 체계적인 선제 대응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소관 2개 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전환’이란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업 등 전통적인 산업 분야 성장이 축소되고 탄소중립·디지털 경제와 같은 새로운 산업분야가 부상하는 등 산업구조의 변화를 뜻한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작년 10월 국회는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등 지원을 위해 산업전환지원법을 제정했다. 산업전환지원법은 정부가 5년마다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조사를 수행하고 노동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재취업 지원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시행령 제·개정안은 산업전환 지원법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았다. 시행일은 오는 25일이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 고용정책심의회에 ‘산업전환고용안정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발대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위원회’를 신설해 산업전환 대응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근로자 및 사업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고용부 장관은 가사근로자 및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정보연계를 통해 관련 행정업무의 편의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했다.

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고용영향 사전

평가’를 위탁한 경우 위탁기관의 명칭과 업무 등을 공고하고, 조사 완료 시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방법을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고, 해당 지원의 결과와 효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고용안정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인력·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지정 후에는 기관명과 업무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국가물관리위, ‘극한 가뭄’ 해법 찾는다

환경부 등 ‘가뭄 대응’ 토론회 개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오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효율적인 가뭄 공동대응을 위한 선결과제’를 주제로, 올해 두 번째 정기 연구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의 극한 가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관련한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 특히 중앙부처·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공동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가뭄 관련 부처·지자체·공공기관 담당자와 학계 및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환경부 및 농림축

산식품부 등 부처·기관의 주제 발표와 이주현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 주재의 전문가 토론회가 이어진다.

환경부 수도기획과는 ‘가뭄대응을 위한 물관리 기관(시설) 간 연계운영 사례 및 효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는 ‘농업가뭄대책과 국가가뭄 대응의 협업 방안’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는 ‘가뭄의 관점에서 본 국가 이수안전도 의재평가’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22·2023년 광주·전남지역 가뭄상황 및 대응 고찰’(지자체 입장에서 본 가뭄 대응) △국토연구원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는 ‘효율적 가뭄공동 대응을 위한 법·제도·기술의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미식 벨트 관광상품 개발 민간 공모 추진

농식품부, 내달 20일까지 모집
개발·홍보, 해설사 육성 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11일 ‘K-미식벨트 관광상품 개발·홍보’ 사업의 민간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고품격 음식 관광상품의 발굴 및 개발을 추진한다. 공모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이며 여행사 등이 대상이다.

K-미식벨트 조성 사업은 K-푸드 생태계 확장을 통한 국내 경기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특색있는 미식 관광상품의 개발·홍보, 해설사 육성, 시설 개

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며, 전통주·식품명인·향토음식 등 유무형 미식 자원 결합을 통한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에 선정되는 민간 기획사(여행사)는 한식 대표 발표문화인 ‘장’을 주제로 한 미식 장소 및 콘텐츠의 발굴, 관광상품 경영자 역량 제고, 지역 명소 관광 연계화 및 홍보 등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미식 자원 데이터베이스 15만여 개’ 및 ‘미식 관광코스 콘셉트 90개’를 기반으로 활동하게 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ADB, 올해 韓 경제 2.2% 성장 전망

‘2024년 아시아 경제전망’ 발표
물가 올해 2.5% 내년 2.0% 안정
“AI 연관 메모리칩 수요 급증 수혜”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에 비해 나아질 것으로 봤으나 2%대 중반을 넘어서진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와 관련해서는 올해 1분기 월평균 3% 상승에도 불구하고, 연간으로 2% 중반으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ADB는 1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가 올해 2.2% 성장할 것이라는 기존(작년 12월) 전망을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2.3%를 제시했다. 2024·2025 모두 2%로 작년(1.4%)보다는 경기 위축이 완화할 것으로 본 것이다.

ADB는 올해 한국이 인공지능(AI) 서비스 및 클라우드서버 산업 확대에 힘입어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꾸준히 지속되고, 특히 하반기에 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에는 수출이 증가해 GDP 성장 폭이 2.3%로 소폭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일부 과잉 관세 면제·인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 전경. /메트로

하 등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 등에 따라 올해 2.5%, 내년 2.0%로 점차 안정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1분기에 1월(2.8%), 2월(3.1%), 3월(3.1%) 등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월평균 3%대를 기록 중이다. ADB의 2024년 물가 전망치(2.5%)에 따르면 2분기 내지 3분기부터 물가가 2%대에 머물 것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ADB는 AI 열풍이 아시아지역의 반도체산업 반등을 주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 영향이 국가별 특화분야에 따라 차별화된다고 했다. 특히 한

국은 지난해 전체 반도체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메모리칩 선도 공급자로서, AI 연관 메모리칩 수요 급증의 수혜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만·중국 등 다른 주요 반도체 강국의 경우, 반도체수출 중 메모리칩 비중이 비교적 낮아 AI 주도 수요 확대 영향을 현재로서는 덜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시아 지역은 중국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리인상 종료, 반도체사이클 전환 등 수출회복세와 인도의 투자주도 성장 등으로 올해 4.9%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망에 비해 0.1%포인트(p) 상향 조정된 것이다. 아시아지역은 내년에도 4.9% 성장하며 견조한 성장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단, 하방 리스크 요인도 제시했다. 중동 지정학적 분쟁 악화를 비롯해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중국의 부동산시장 위축, 기후 이상현상 발생 가능성 등이다.

이 지역 물가상승률은 에너지가격 안정 및 통화긴축 지속 등의 영향으로 올해 3.2%, 내년 3.0% 등 서서히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김연세 기자

고금리에 국가부채 2400조 ‘역대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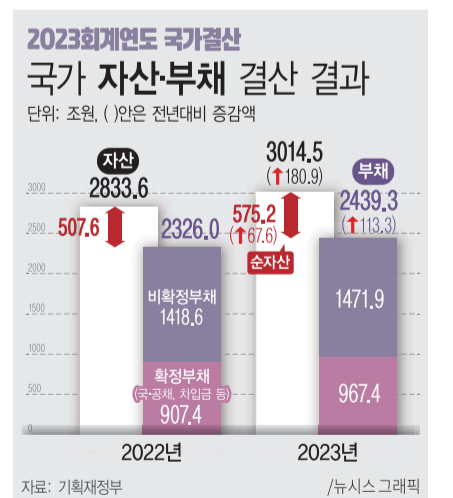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의결
작년 기준 GDP 2236조 초과 수준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2400조를 넘어섰으며 역대 최대에 달했다. 이는 고금리 기조 속 국채이자 부담이 커지고 국세가 덜 걷힌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총지출이 줄었으나 총수입도 감소하며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36조 원대를 기록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심의·의결됐다.

국가부채는 지난해 2439조3000억 원으로 전년(2326조 원) 대비 113조 3000억 원(4.9%) 늘어났다. 작년 기준 명목 GDP인 2236조3000억 원을 초과한 수준이다. 이는 국가결산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년 회계연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이다.

세부적으로, 작년 확정부채는 전년보다 60조 원 늘어난 967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 늘어난 재정적자를 보



전하기 위한 국제 발행이 증가했지만 외화 외국환형평기금채권(외평채) 잔액이 늘었다. 외평채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우리 정부가 발행하고 보증하는 국채를 가리킨다.

비확정부채는 전년보다 53조3000억 원 증가한 1471조9000억 원이었다. 그중 연금충당부채는 1230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조9000억 원 늘었다. 공무원 연금이 45조3000억 원, 군인연금이 3조 6000억 원 각각 증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1 the hilt

스크리밍 이글의 또 다른 도전!
더 힐트, 당신의 마음을 꿰뚫다.



더 힐트 이스테이트 샤도네이

NARA CELLAR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어두운 밤길·빗길에도 잘 보여요” 서울시, 차선 1174km 고성능 개선

교통량 많은 6개 지역 차선 174km 조명 부착 등 신기술 추가 적용 오는 7월까지 시공... 추적조사 예정

어두운 밤길과 빗길에서도 밝고 선명하게 보이는 고성능 차선이 늘어난다.

서울시는 올해 차선 1174km를 고성능으로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성능 차선은 반사 성능이 높은 유리알을 차선 도색용 페인트에 섞어 사용하고, 잘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해 기존보다 시인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올해 시내 차선 총 7216km 중 1174km(약 16%)를 고성능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이 중 교통량이 많은 6개 지역 차선 174km에는 조명 부착 등 신기술을 추가로 적용해 효율성을 검증한다.

차선 신기술이 추가로 도입되는 곳은 ▲서초구 서초동 ▲노원구 상계동 ▲서대문구 홍은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진구 구의동 ▲마포구 동교동이다. 시는 이들 지역에서 우천형 유리알, 비정형 돌출차선, 차선 테이프 등의 새로운 공법을 검증한다.

우선 시는 점선인 차선 끝 부분에 자체 발광체인 태양광 LED ‘도로표지



돌출차선 시공 사례. /서울시

병’을 설치해 차선의 시인성을 보완하는 방법을 적용해볼 예정이다. 비 오는 날 야간에 차선이 물에 잠겨도 표지병에서 나오는 빛을 통해 운전자가 차선을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초구 서초동, 노원구 상계동, 서대문구 홍은동, 마포구 동교동 등에 시범 적용된다.

표면에 울퉁불퉁한 골극이 있어 차

선이 빗물에 잠기는 현상을 최소화하는 ‘돌출차선’도 현장에 도입된다. 재료 특성상 반사 성능이 뛰어나고, 시공 속도가 빨라 교통 통제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선 테이프’는 영등포 여의도동에 적용해볼 방침이다.

일반 유리알보다 반사 성능이 좋은 ‘우천형 유리알’을 일정 비율 이상 차선용 페인트에 섞어서 포장하는 방법은 광진구 구의동에 시범 도입된다. 현재 고성능 차선에 사용되는 유리알보다 고가지만, 반사 성능이 높아 비 오는 날에도 차선이 눈에 잘 띈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오는 7월까지 신기술을 입힌 차선의 시공을 마치고 서울연구원과 내구성·시인성·시공성 등에 대한 1년간의 추적조사를 거쳐 현장 적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효과가 우수한 공법은 향후 서울시 노후 포장도로 정비 사업에 사용된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시민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올해 총 1174km의 차선을 고성능으로 재도색하는 작업을 실시한다”면서 “이와 함께 서울 도로 환경에 최적화된 고성능 노면 표시 기술을 발굴·도입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교육부, 내년 교육대학 입학정원 12% 감축

이화여대 제외, 3808명 → 3351명

정부가 내년 교육대학과 국립 초등교육과 입학정원을 12% 줄인다. 교대 인원을 조정하는 건 13년 만이다. 단, 사립대학인 이화여대는 대학 자율에 맡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지승인 계획(안)’을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39명 규모의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제외하더라도 대학의 총 입학정원은 현재 3808명에서 2025학년도 3351명으로 457명 줄어든다. 이화여대의 경우, 사립대학인데다 정원 규모가 적어 감축을 강제하지 않고 대학이 자율 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교대 및 초등교육과 입학정원은 이화여대(39명)를 포함해 3847명으

로 동결돼 왔다. 2000년 4945명에서 2005년 6225명까지 확대된 후 매년 감축하다 2012년부터 3848명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초등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2014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과 지난 1월부터 논의하며 대학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교육대학 신입생 중도이탈률 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입학정원 감축 규모 및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입학정원 감축이 대학 재정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계 지원하고, 교원양성을 위한 자율 혁신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lhj@

경기 광주시, 버스노선 일부 개편안 시행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환승체계 구축 차고지 중심, 지·간선 체계 개편 골자

경기 광주시가 ‘광주시 버스노선 체계 개편계획’ 중 일부 개편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지역내 교통 소외지역의 통학 여건 개선과 역사 환승 체계 마련을 위해 ‘광주시 버스노선 체계 개편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 사업은 출·퇴근, 등·하교 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승 체계 구축과 차고지를 중심으로 한 지·간선 체계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개편되는 사항은 2번 시내버스 노선과 광주12번 마을버스 노선, 퇴촌권역 38번 계열 다계통 시내버스 노선을 포함한 총 10개 노선을 2개 노선(431·432번)으로 통합한다. 또 기존 운행 중인 차량은 10대에서 17대로 증차

할 계획이다.

시는 유사 노선(마을버스 광주1번, 광주2번)에 대한 증차 병행을 통해 개편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개편안 시행과 함께 마을버스 1개 노선(광주6)을 추가 신설해 목동·직동에서의 태전지구 학교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삼동역 접근성을 높인다. 기존 광주14번 노선의 경우 경로 변경을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은 “환승 체계와 번호 체계 개편이 같이 이뤄지는 만큼 당장의 불편은 불가피하지만 적극적인 홍보와 단계적인 개편계획 이행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선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경기)=유진채 기자 yujin@

디자인으로 선유도역 골목상권 살린다

서울시, 상권 살리는 골목 디자인 ‘선유로운 20’ 프로젝트 추진

서울시는 ‘상권 살리는 골목 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선유로운 20’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11일 밝혔다.

본 사업은 골목 안에 있어 손님들의 발길이 뜸한 점포를 쉽게 인식해 찾을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 테이블, 벤치 등의 조형물을 일괄적으로 디자인으로 꾸미는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시는 선유도역 골목형 상점가와 선유로55길 골목상권, 양평로22라길 선유 걷고 싶은 거리에 지역 랜드마크와 벤치, 상권 안내 사이니지(안내판) 등의 조형물을 설치했다.

시는 ▲포토존(1종) ▲벤치 및 테이블(12종) ▲안내 사이니지(2종) ▲상점



선유로운 포토존. /서울시

플래그와 펫파킹(5종)을 포함 총 20종의 디자인을 개발하고,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인 ‘선유로운’을 살리는 20가지 디자인 솔루션이라는 의미로 ‘선유로운 20’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선유로운’ 상권을 찾는 방문객의 관심을 끌어 골목으로 유

입시키고, 상권 체류시간을 늘리고자 골목 인근 조형물에 디자인을 입히는 전략을 모색했다”면서 “방문객이 지나치는 곳에 포토존을 설치해 숨어 있는 상점을 인식하게 만들었고, 대로변에 테이블과 벤치를 마련해 선유도, 한강공원 방문객이 쉬면서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영 환경 조성

‘시내버스 운영 개선 대책’ 마련

서울시는 ‘시내버스 운영 개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시는 파업 때도 중단없는 버스 운영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시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시내버스를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노동조합법이 개정돼 시내버스가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을 결의하더라도 최소한의 운행률은 준수해야 해 시민의 출퇴근길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안정적인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해 수

익 다변화, 노선조정 기준 수립, 재정 지원 방식 개선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시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친환경버스 2498대(전기버스 2355대, 수소 버스 143대)를 도입한다. 버스 회사의 경영 혁신을 유도하고 광고 수입금 증대 방안을 발굴해 운송수지 적자를 메울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용역을 통해 중복노선을 재편하고 노선조정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용인시, 교통약자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14곳에 설치 예정

용인특례시는 어린이나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건널목을 건너도록 보행 신호의 시간을 알아서 늘려주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 14곳에 설치한다.

스마트 횡단보도란 바닥 신호등이나 음성 안내 보조장치, 보행자 감지 시스템, 보행 신호 자동 연장시스템 등 각종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통 시스템이 하나 이상 설치된 횡단보도를 말한다.

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보행 신호 자동 연장시스템’을 도입한다. 신호등 기둥에 부착한 AI카메라가 보행자를 감지해 길을 건널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신호 시간을 자동으로 연장해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시스템이다.

설치 예정 지역은 처인구 역북초와 용인둔전초, 기흥구 구성초와 초당초, 수지구 대지초와 현암초 등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14곳이다.



용인시 기흥구 백현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보행 신호 자동 연장시스템 /용인시

시는 초등학생의 주요 통학로인 이들 횡단보도에 보행 신호 자동 연장시스템을 설치하면 성인보다 보폭이 좁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어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백현초 앞에 설치된 보행 신호 자동 연장시스템을 비롯해 97개의 LED 바닥 신호등과 114개의 음성 안내 보조장치, 174개의 활주로 표지, 38개의 우회전 안내 시스템 등 총 525개의 스마트 교통 시스템이 가동 중이다. /용인(경기)=유진채 기자

빨대·포장지 줄이고 공병은 회수... 必환경·자원순환 앞장

유통업계 '가치소비' 트렌드

'가치소비'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유통업계가 환경을 고려해 불필요한 포장 및 장식을 덜어내고 있다.

11일 식품업계를 살펴보면, 매일유업은 컵 커피 제품인 '마이카페라떼' 3종의 캡과 빨대를 제거하며 패키지를 변경했다. 플라스틱 캡과 빨대를 컴포리드(홀림방지 이중리드)로 대체해 제품 1개당 플라스틱 3.2g(캡 2.4g, 빨대 외포장 0.8g)을 절감했다.

지난 2021년 생생우동의 묽음 포장을 띠지로 변경하며 친환경을 선도했던 농심은 최근 또 한 번의 패키지 변경을 통해 불필요한 포장을 최소화했다. 플라스틱 트레이와 비닐 포장을 제거하고 종이 포장으로 변경했다.

생활용품 전문기업 크린랩은 ESG 경영활동 실천을 위해 간소화된 포장의 '슬라이딩 크립' 2종을 새롭게 출시했다.

슬라이딩 커터를 부착형에서 입상형



생생우동 종이 포장. /농심

매일유업 컵 커피 '마이카페라떼' 패키지 변경으로 플라스틱 절감

농심 생생우동 포장 최소화 플라스틱·비닐 제거, 종이로 변경

아모레퍼시픽 유리공병 수거 화장품 용기 재활용 프로세스 구축

으로 변경함으로써 외부로 드러난 커터를 보호하는 용도였던 쉬링크(shrink, 수축) 외포장을 없앴고, 이를 통해 비닐 소재의 낭비를 줄이는 등 자원의 효율성과 재활용 편의성을 높였다.

화장품 용기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뷰티업계 최초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대상 화장품 유리병 회수 및 재활용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아모레퍼시픽 제품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의 화장품 유리병도 모두 수거할 방침이다.

화장품 유리병은 다양한 색상으로 코팅되기 때문에 재활용이 쉽지 않다.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용기 재활용 프로세스를 구축해 수거한 유리병을 회수, 선별, 파쇄하며 고품질의 유리 원료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화장품 용기로 재활용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아모레퍼시픽그룹 물류센터가 있는 경기도의 공동주택 중 화장품 유리병 수거함 설치 가능한 곳을 대상으로 지구의 날인 4월 22일부터 진행한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협약을 통해 화장품 유리병을 별도로 배출할 수 있는 수거함과 봉투를 제작해 보급한다.

화장품 제조사인 한국콜마는 자회사 연우를 통해 친환경 패키지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연우와 한국

콜마홀딩스는 한화솔루션과 '친환경 소재 적용 화장품 포장재 상용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생플라스틱 소재인 PCR-PE을 활용한 화장품 용기 상용화에 돌입하는 것이 골자다. 한화솔루션은 재생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해 연우에 공급하고, 연우는 이 소재를 적용한 화장품 용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위해 포장을 최소화하거나 재활용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자원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소비자의 참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AMORE:CYCLE



/아모레퍼시픽



고객이 롯데백화점 본점 3층에서 '넘버링' 팝업 매장을 구경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 주얼리 '넘버링' 팝업

롯데백화점이 본점 3층에서 컨템포러리 주얼리 브랜드 '넘버링'의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

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오는 30일까지 전 제품을 10% 할인한다. 특히 인기 제품 20종은 20% 할인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측은 "최근 주얼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MZ세대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는 주얼리 브랜드를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한다.

/이청하 기자

현대백 "아프고 병든 식물 치료·처방해 드려요"

목동점서 '보타닉랩' 케어서비스 매주 화요일 '나무의사' 상담도

현대백화점이 식물로 집을 꾸미는 홈가드닝(실내 식물 재배)과 플랜테리어(식물+인테리어)가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함에 따라 반려식물 케어 서비스를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6월 27일까지 목동점 7층 보타닉 하우스에서 반려식물에 대한 모든 것을 상담해주는 '보타닉랩(BOTANIC LAB)' 케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화훼 전문가가 상주하며 병들고 아픈 반려식물의 생육상태를 진단하고 치료부터 처방, 사후관리 요령까지 알려주



현대백화점 목동점 보타닉 랩. /현대백화점그룹

는 서비스다. 매주 화요일에는 국가 공인 전문가 '나무의사'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현대백화점 앱을 통해 예약 후 화분을 가져오면 된다. 화훼 전문가가 식물의 상태를 확인한 뒤 상담

별 약제 처방, 분갈이 등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집으로 돌아가서도 식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물 주기, 병해충 등 사후관리 방안도 꼼꼼하게 알려준다. 서비스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상담은 무료로 진행된다.

서비스오픈을 기념해 현대백화점은 목동점에서 직접 씨앗을 심고 관찰할 수 있는 '마이 리틀 가든' 행사를 연다. 7층 하늘정원의 야외 텃밭에 토마토와 바질 씨앗을 심어 자라는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으며, 행사 종료 후에는 씨앗을 분갈이 해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행사는 다음달 4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다.

/신원선 기자

이마트 토마호크 등 할인행사

이마트가 캠핑족을 위한 할인행사를 선보이며 봄철 나들이 소비자를 공략한다.

이마트는 오는 12일부터 일주일간 '빠'가 붙어있어 특별한 양고기, 토마호크, 돈마호크 등을 선보이는 축산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고 밝혔다. 먼저 호수산 항공 직송 양고기 전 품목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30% 할인한다. 이마트에 따르면 최근 양고기는 빠가 붙어있어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을 앞세워 소비자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로 올해 1~3월 이마트 양고기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0% 가까이 증가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아울러 이마트는 빠가 붙은 고기의 원조 격인 '블랙앵거스 토마호크/티본 스테이크'를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30% 할인한다.

/이청하 기자

스타벅스, 봄 음료 '슈크림 라떼' 인기

누적 판매량 2000만잔 기록

스타벅스코리아가 봄 프로모션 음료로 출시한 '슈크림 라떼'가 누적 판매량 2000만 잔을 기록하며 올해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2017년 첫 출시한 슈크림 라떼는 천연 바닐라 빈이 들어간 슈크림의 달콤함과 진한 바닐라 풍미가 매력적인 음료로 올해 누적 판매량만 300만 잔을 넘어섰다. 이는 매장의 통상 영업시간 내 1분당 100잔씩 판매된 것이다.

특히 올해 슈크림 라떼의 2000만 잔 돌파는 2017년 이후 출시된 스타벅스의 역대 프로모션 음료 중 가장 많이 판매된 수량이기도 하다. 슈크림 라떼는 스타벅스 음료팀이 300여 차례가 넘는 실험과 수십 번의 패널 시음 테스트를 통해 선보인 음료로도 유명하다. 스타벅

스는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본연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트렌드에 맞는 슈크림 라떼 출시를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슈크림 라떼 출시를 기다리는 두터운 팬층이 따로 있을 정도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스타벅스는 '슈크림 라떼'를 매년 봄 시즌 음료로 8년 연속 출시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최근 슈크림 라떼를 상시 판매로 전환해달라는 고객 요청에 부응하고자 판매 기간을 4월 말로 연장했다. 최근에는 급격히 따뜻해진 날씨로 인해 슈크림 라떼 10잔 중 8잔이 아이스로 판매되며 연일 인기를 끌고 있다.

한편, 스타벅스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4월에 즐기기에 좋은 '피스타치오 크림 콜드 브루', '라이트 핑크 자몽 피지오', '치킨&머쉬룸 멜팅 치즈 샌드위치' 등 새로운 음료와 푸드를 선보이며 활기찬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셀트리온, 美서 15년간 짐펜트라 독점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특허 등록

셀트리온이 미국 시장에서 특허 전략을 펼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특허청에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짐펜트라(사진)' 제형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특허는 항후 경쟁사의 피하주사 제형 인플릭시맙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을 방어할 수 있는 장벽 특하다. 셀트리온은 해당 특허 만료 시점인 오는 2038년까지 미국 시장에서 짐펜트라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항후 투여법 특허까지 등록하는 경우 최대 2040년까지 특허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짐펜트라라는 셀트리온이 자체 개발한 세계 최초 인플릭시맙 피하주사 제형 치료제다. 셀트리온은 기존 정맥주사 형태의 인플릭시맙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변경하는데 성공,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그 유효성과 편의성을 입증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미국에는 올해 3월부터 시장 공급 절차에 돌입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짐펜트라를 바이오시밀러 대비 가격이 높은 신약으로 출시한다. 이와 관련 셀트리온은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hy 건강식품 49종 기획전

hy가 가정의 달을 맞아 '건강식품 기획전'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hy는 선물로 인기가 높은 '발효 발효효삼'과 '발효 발효녹용', '브이푸드 비타민' 등 자사 건강식품 49종으로 기획전을 준비하고 여기에 가격 할인과 추가 혜택을 더했다.

금액대별 선물도 마련했다. 1만~2만원대 실속형 선물부터 7만원 이상 프리미엄 상품으로 기획 코너를 별도 구성했다. 최대 60% 할인해 구입 목적과 예산에 맞춰 준비할 수 있다.

'프레딕 선물하기' 이용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선물한 금액의 10%를 최대 1만원까지 추가 적립해 준다. 추첨을 통해 탈모증상완화기능성 샴푸 '브이푸드 아누카 블랙 샴푸'를 증정한다.

/신원선 기자

삼성전자, 15년 연속 글로벌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 1위

판매량 기준 점유율 33% 차지
 年 200만대 이상 판매 '역대최대'
 "고객 목소리 민첩하게 반응한 결과"

삼성전자가 지난해 전 세계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15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11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작년 글로벌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판매량 기준 점유율 33%로, 연간 200만대 이상을 판매하며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2009년 첫 글로벌 1위 달성 이후 15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삼성전자 모델이 15년 연속 글로벌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 1위를 달성한 삼성전자의 상업용 디스플레이 제품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는 2009년 상업용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모델이 15년 연속 글로벌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 1위를 달성한 삼성전자의 상업용 디스플레이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레이 글로벌 1위에 처음 오른 이후 내내 1위를 지켜 왔다.

삼성전자는 ▲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기술을 적용한 세계 최초 모듈러 디스플레이 '더 월' ▲ 초슬림 두께와 균일한 베젤 디자인으로 몰입감을 강화한 '스마트 사이니지' ▲ 스포츠와 랜드마크 시장부터 전기차 중

전소에 이르는 맞춤형 '아웃도어 사이니지' ▲ 전자칠판 '삼성 플립 프로' 등 다양한 상업용 디스플레이와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더 월 라인업은 설치 편의를 높인 '더 월 올인원', '버추얼 프로덕션 전용 더 월' 등으로 확장 중이며, 최근 두바이 아틀란티스 더 로열, 싱가포르 마리

나 베이 샌즈 등 초호화 호텔의 최상위 스위트룸에도 공급되며 호텔업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 1월에는 세계 최초로 투명 마이크로 LED를 선보였다. 투명 마이크로 LED는 북미 디스플레이 전문 매체 레이브(rAve)가 선정한 '가장 놀라운 LED제품' 등 3개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사이니지 내 콘텐츠를 손쉽게 운영·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삼성 VXT'도 출시해 솔루션 사업도 확대했다.

정훈삼성전자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15년 연속 세계 1위는 시장 변화와 고객 목소리에 누구보다 민첩하게 반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의 필요에 부합하는 전문화된 디바이스와 솔루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신한은행-아인의료재단, 저출산 극복 협약

신한은행이 아인의료재단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인희망(아이는 희망) 프로젝트' 추진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한은행 채널부문 전필환 그룹장(오른쪽 네번째)과 아인의료재단 오익환 이사장(오른쪽 다섯번째)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Sh수협은행, 어업인 지원에 25억 기부

Sh수협은행이 기부금을 조성하고 어업인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Sh수협은행은 수협재단에 어업인 지원을 위한 기부금 25억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기부금 전달식에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왼쪽)과 강신숙 Sh수협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h수협은행

현대차, 어린이날 '휠핑' 참가자 모집

주제 '아이오닉 5 어린이모험단'
 내달 3일부터 6일까지 2회차 진행

현대자동차가 어린이날을 맞이해 특별한 추억을 선물한다.

현대차는 11일 어린이날 아이오닉 5와 함께 가족과 다양한 캠핑 활동을 즐기는 '휠핑' 시즌 5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휠핑은 휠과 캠핑의 합성어로 시즌 5는 '휠핑: 아이오닉 5 어린이 모험단'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오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씩 총 2회차로 경기 연천군 소재 연천 재인폭포 오토캠핑장에서 진행된다.

자녀가 있는 아이오닉 5 보유 고객 또는 관심 고객이 대상이며, 이날 오전 10시부터 17일 오후 5시까지 휠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어린이날을 맞아 해 더욱 많은 고객들이 아이오닉 5와 함께 캠핑을 즐기며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셀바이오텍, 'ISO 14001' 인증 획득

환경 최우선 기업문화 발전

안전한 유산균 '듀오락'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셀바이오텍이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다.

셀바이오텍은 글로벌 인증기관 로이드인증원으로부터 국제표준 환경경영 시스템 'ISO 14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ISO 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1996년도에 제정한 경영시스템으로, 기업이 환경경영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이와 관련 셀바이오텍은 환경경영 방침을 세우고 환경법규 준수 및 관리, 환경영향의 최소화, 환경개선 활동 등의 운영 기반을 구축했다고 설명한다.

특히 셀바이오텍은 유산균 발효 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비료도 생산하고 있다. 그동안 버려지던 '유산균 발효액'을 환경친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기농업자재로 등록, 김포시와 함께 친환경 비료 '바이오락토'를 생산한다.

아울러 '바이오락토'는 아미노산, 효소 등 생리 활성물질을 포함해 김포도 시농부학교 등에 기부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색동나래교실' 멘토링 진행

종로산업정보학교서 직업 강연 활동 하우를 공유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1일 서울 종로 종로산업정보학교에서 직업 강연 프로그램 '색동나래교실'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색동나래교실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캐빈승무원이 업무 소개 및 준비과정, 승무원 직업의 장점, 비행 중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을 소개했다. 또 맞춤형 1대 1 멘토링도 진행,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노

를 찾아가 청소년들에게 항공사 관련 직업 강연을 하는 교육 기부 활동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약 500회의 색동나래 교실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를 위해 운항승무원, 캐빈승무원,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등 항공 전문 지식을 가진 186명 규모 봉사단을 구성, 풍성한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컬리, '99시리즈' 판매량 90만개 돌파

출시 1년 4개월 만의 성과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가 가성비 상품 시리즈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높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을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컬리는 '99시리즈'가 출시 1년 4개월 만에 판매량 90만개를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월 평균 5만 7000여 개, 매일 2000개씩 팔린 셈이다.

'99시리즈'는 컬리 대표 자체 브랜드로 판매가는 9900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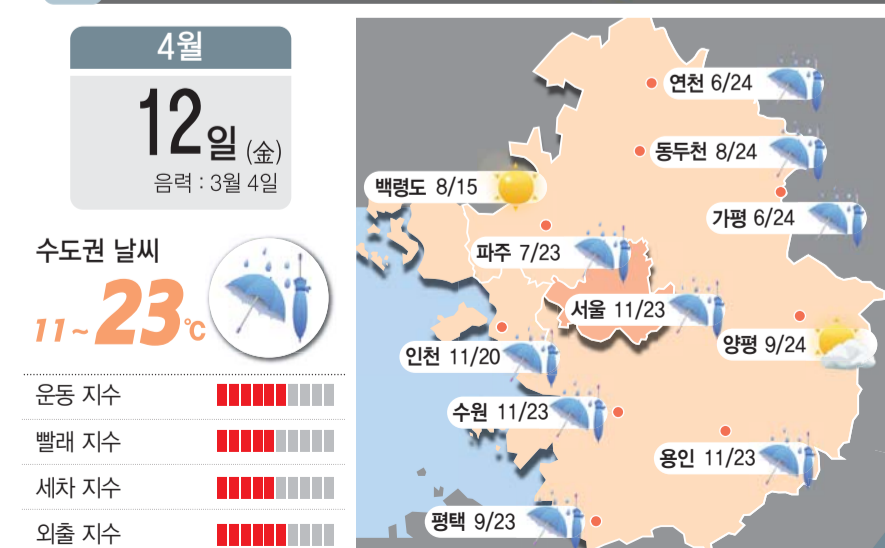
컬리는 지난 2022년 11월 '두 마리 99치킨'을 시작으로 '99시리즈'를 잇따

라 출시해 왔다. 컬리에 따르면 당시 99치킨은 50일 연속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진됐다. 이후 '99 크리스피 핫도그'와 '99 순살 닭갈비'가 '99시리즈'의 명성을 이어갔다는 것이 컬리 측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99소시지'로 '삼겹후랑크 소시지'도 출시됐다. 삼겹살이 채워진 속과 12시간 저온 숙성 공정을 거친 품미가 특징이다. 이와 관련 컬리는 "99시리즈는 가격뿐 아니라 맛에도 주력한 상품"이라며 "컬리는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오늘의 날씨



인사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안전문화 교육과장 김용두 ▲국가민방위 재난안전 교육원 기획협력과장 김창호

부음

▲김현주(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명예교수·전 한국방송학회)씨 별세, 조유

경씨 남편상, 김수연(제일기획 프로)씨 부친상 = 11일 오전 1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13일 오전 7시30분, 장지 이천 예텐낙원 봉안당. 02-3010-2000

▲권영욱씨 별세, 고순애씨 남편상, 권지현(FETV 경제부 기자)·권지윤·권지희씨 부친상, 박동수(송산피엔이 이사)씨 장인상 = 10일 오후 6시20분, 설낙원 김포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12일 오전 11시30분. 031-449-1009



동아제약, '박카스 캠퍼스 어택' 실시

동아제약이 학업에 지친 대학생들 피로회복에 앞장선다. 동아제약은 피로회복제 박카스가 '2024 박카스 캠퍼스 어택'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9일 숙명여대에서 시작해 오는 15일 전남대, 16일 동아대, 17일 영남대, 18일 충북대 등 총 5개 대학에서 열린다. /동아제약



조아제약, 16년째 '프로야구 대상' 이어가

조아제약이 한국야구 선수와 팬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소비자 접점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아제약은 '조아제약 프로야구 대상'을 이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16년째를 맞은 '조아제약 프로야구 대상'은 국내 유일 제약사 주최 야구 시상식이다. /조아제약

ION SUPPLY DRINK

POCARI SWEAT

동아오츠카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안전에 유의하세요

'멀티악재' 앞에서 기우제만 지낼텐가



차 상 근 의
관망과 훈수

“최근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각 부문에서 양호한 흐름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양호한 경제지표가 국민에게 보다 체감될 수 있도록 정부는 우리 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올리자 합니다”
4.10 총선을 2주 정도 앞둔 지난달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의 모두발언 요지이다. 상황이 양호한데 '비상' 대책 회의를 왜 하는 지 어리둥절해진다. 집권 여당과 한 배를 타고 있는 경제권력인 만큼 대사(大事)를 앞두고 대업(大業)가 도에 흡집내는 행위를 자제하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이해도 된다. 그러나 안이한 인식 수준을 넘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지시키는 것은 아닌 지 심히 우려스러웠다.
지금 한국경제는 정책사령탑의 표면적 인식과 판단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국내외 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는 '고환율

-고물가-고유가'라는 트리플악재가 한 몫하고 있다.
먼저 원·달러 환율이 이해 못할 국면으로 치솟고 있다. 이미 원화환율은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360원을 넘어섰고 1400 원대까지 치솟았을 때의 공포가 금융시장을 옥죄기 시작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하며 1분기에만 90억달러 흑자를 냈다. 지난달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5조1732억원 순유입을 기록했고 지난해 11월 이후 다섯달 연속 유입세를 보였다. 외국인 국내 직접투자(FDI)도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70억50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달러가 지속적으로 국내 순유입되는 상황이어서 허약한 현재의 원화약세 추세를 설명하기 어렵다. 결국 미국의 경제연착륙과 연결된 강달러 상황 앞에서 원화 가치가 힘을 못쓰고 있다는 것이 주된 분석이다.
여기에 소비자물가는 울들어 다시 반등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동의 전쟁확산 우려로 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가까지 배럴당 1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유가인상을 겨냥한 러시아가 최근 감산을

결정했고 석유수출국기구(OPEC)도 현재의 감산체제를 지속할 것임을 천명했다. 외산들은 유가가 다시 100달러대에 올라서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고공행진하는 환율과 유가는 가뜰이나 불안한 국내 물가를 더 밀어 올릴 수 있다.
트리플악재 속에서 대출 부실화가 겹친다면 차치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시장에서는 총선이 끝나면 부동산PF 사업장의 부실이 현실화되고 영세사업자와 가계의 한계대출이 부채위기로 비화할 것이란 루머가 떠돌고 있다. 총선결과로 나온 극단적 여소야대정국에서 현정부가 위기관리를 제대로 수행할 지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정통경제관료 출신인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0월 정부여당회의에서 "가계 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 부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몇십배 위력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위기는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앞에 있었다. 현 정부의 위기에측과 문제해결 능력이 시험대에 이미 올라선 형국이다.
/skc8472@metroseoul.co.kr

너무 성급한 금투협 야구대회 폐지



기 지 수 첩
원 관 희
(자본시장부)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데는 스포츠만큼 좋은 것이 없다. 몸을 부딪치면서 땀을 흘리는 운동만큼 효과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는 야구대회, 마라톤대회 등을 개최하며 회원사들의 화합과 친선 도모를 다져왔다. 올해도 한국거래소는 마라톤대회를 열고 금융투자자들이 화합하는 장을 마련했다. 주 행사인 마라톤대회 외에도 회원사별 대왕제기차기 대항전, 어린이 종이비행기 멀리날리기 대회와 에어바운스 챌린지 등 다채로운 활동들이 진행됐다. 성황리에 끝난 행사에 금융투자업계 임직원과 가족 8000여명이 참여했다.

이 같은 금융인의 친목활동 일환이었던 스포츠 대회에 찬바람이 불었다. 금융투자협회는 '업계의 소통과 화합의 행사'인 야구대회를 폐지한 것이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야구대회는 10년 동안 증권사, 운용사, 유관기관 등의 친목을 이끌어 왔던 대회였다. 단순히 친목을 넘어 대회 참가팀들이 모은 자선후원금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기부도 하는 등 금융투자업계의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뜻깊은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행사 폐지에 대해 협회는 소수의 인원만 참가하는 야구 외 다양한 스포츠나 예술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지원 요구가 회원사로부터 증가하고 있어 폐지했다는 것이다. 협회는 특정 스포츠보다 사회공헌 활동을 더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야구 대회에 투입되던 예산을 다른 사회공헌이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에 할

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협회 입장에 대해 업계에서는 야구대회가 참여업체의 호응도 없이 유명 무실하게 진행된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면서 조금은 불편한 심정을 내비치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별다른 설명도 없었고 폐지된다는 소식을 뉴스를 보고 알았다"며 "오랜 기간 참여했던 대회였던 만큼 갑자기 사라져 버려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협회 나름대로 입장이 있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굴러가고 있던 업계의 대표적인 행사를 쉽게 없앤 것은 문제가 없지 않은 결정이다. 봉사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협회 입장에 맞는 대안을 내놓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충분한 역할을 한 야구대회를 다시 살리는 방안도 강구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wkh@

오늘의 운세 4월 12일 (음 3월 4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친척과 문서거래가 있겠다. **48년생** 둘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심정으로 오늘 하루를 신중하게 행동. **60년생** 꽃길 따라 내 마음도 오묘하다. **72년생** 자비는 무엇인가를 베푸는 것을 전제하는 말. **84년생** 작은 먼지가 눈을 아프게.
-  **37년생** 아랫사람 말을 잘 경청하면 이로운 일이 있다. **49년생** 의식과 사고의 변혁은 나부터 실천. **61년생** 서두르지 말고 급할수록 돌아서 가라. **73년생** 루세 상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85년생** 조상님 덕이 내려온다.
-  **38년생** 마음에 안 들어도 어찌나. **50년생** 타인의 평가에 노여워 말고 행동을 고쳐라. **62년생** 아무기가 천룡을 기다렸으니 승천. **74년생** 시간은 자꾸 가는데 마음은 급하고 허둥거림. **86년생** 다리가 부러질 것을 발목이 빠른 정도로 넘겼다.
-  **39년생**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다. **51년생** 골치 아픈 일은 배우자와 상의하면 잘 처리. **63년생** 일시적 감정으로 행동하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 **75년생** 이제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할 때. **87년생** 어린 시절의 꿈을 되새겨 본다.
-  **40년생** 경험상 유리한 정보를 습득. **52년생** 배우자 외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지 마라. **64년생**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 한다. **76년생** 선봉에 나서는 것이 다른 사람의 시기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 **88년생** 내면의 천재성에 경외심이 인다.
-  **41년생** 결혼은 돌이 했으나 인생은 결국 혼자 가는 것이다. **53년생** 아름다운 처신은 구슬수를 예방한다. **65년생** 비상금을 활용하여 일을 처리. **77년생** 불행하다고 생각 말고 자성 개혁을 일구어보라. **89년생** 세상의 모든 것이 인연 법이다.
-  **42년생** 가지 못한 길에 미련을 두지 말라. **54년생** 서로 돕고 이해하는 것이 전체의 이익을 가져온다. **66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도 좋으니 쉬지 말고 전진. **78년생** 어느 곳이나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있다. **90년생** 알면 보이듯이 지혜를 찾자.
-  **43년생** 검은색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55년생** 손님으로 환영을 받으니 기쁨이 넘친다. **67년생** 사람은 나를 슬프게 만들기도 한다. **79년생** 발을 나사치며 두려워하면 좋은 꿈을 얻지 못함. **91년생** 도화가 발동하니 이성과 대화를 신중히 해야.
-  **44년생**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어찌 알겠는가. **56년생** 타인의 행복을 부러워 말고 가족에게 잘하라. **68년생** 고급의상실에 가서 화려하게 변신해본다. **80년생** 내일의 태양이 있는 한 슬퍼할 것 없다. **92년생** 반려 아기를 키우려면 계획을.
-  **45년생** 모든 일에 순서가 있는 법이니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라. **57년생** 북쪽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69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을 버리지 말라. **81년생** 인연을 만나도 때가 아니라서. **93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은 과감히 포기.
-  **46년생** 살림하는 주부가 오늘따라 유난히 바쁘다. **58년생** 늦지 않았으니 근검절약으로 대비를 시작. **70년생**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자. **82년생** 수출 실적이 좋아서 회사가 기쁘다. **94년생** 미래를 위해 내 신용이 큰 자산이다.
-  **47년생** 관재수가 있으니 운행 꼼꼼하게. **59년생** 운세가 상승하니 동업자와 영업실적이 향상. **71년생** 흰색 옷이 그대에게 행운을. **83년생** 듣기 싫은 얘기도 듣고 기억해두면 길선하게 변화. **95년생** 반려 아가 강아지를 보며 중국어 간 푸바오가 생각.

김상희의四季

돈과의 밀당



사람 사물 사이에는 밀고 당김이 작용한다. 친구 사이나 직장 상사와 부하 사이 그리고 연인 사이도 이 법칙이 작동할 때 좋은 관계가 만들어진다. 이는 특히 돈에도 유용하다.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으로 돈을 경원시하는 정서가 있다. 돈을 주고받을 때 꼭 봉투에 넣는 문화가 있다. 기본 예의이겠지만 어떤 문화학자는 돈을 더러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기도 했다. 한참 전부터 재테크 바람이 불면서 돈벌이에 관한 서적이 많이 출간됐다. 서점에 가면 다양한 재테크 서적이 있고 판매도 잘 된다.
그런데 요즘 전철이나 도서관에서도 재테크 책을 보는 사람은 드물어 보인다. 그렇게 많이 팔린 책은 어디로 갔을까. 돈 버는 책을 드러내놓고 보기 쑥스러워 사람들 없는 곳에서 보는 것일까.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일까. 유교적 성향으로 돈을 멀리하려고 하고 돈을 밝히면 안 좋은 시선을 받기도 하는데 돈을 밀어내면 돈이 나에게 올까. 생각해보자. 모든 생물과 사물에는 보이지 않는 기운이 작용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면 그 사람도 언연중에 나를 멀리한다. 돈도 예외가 아니며 사물이라고 다르지 않다.
돈은 사람의 생활에 가장 중요하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다. 당장 아파봐라. 당장 병원에 가지 못하고 돈이 없으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진다. 사랑이고 가족이고 긴병에 장사 없으니 좀 더 솔직해지자. 밀어내지 말고 돈을 내 쪽으로 당길 방법을 찾고 돈 버는 기술을 습득해야 할 것이다. 버는 것이 실력이요. 모으는 것이 능력이다. 잊지 말자. 내가 돈을 귀하게 여기고 인색하지 않게 사랑한다면 돈도 자연스럽게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세익하리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일대일 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6			3	8	5			
		3	1					
3			5		6	9	7	
			4		9		6	
9				1				5
	5		8		2			
	7	1	2		8			9
						1	2	
	3	2	9					4

5	4	9		6		3		
	7				4			
	5	2	7				8	6
3	9					8		
	6						1	
		7					5	9
7	2				6	9	4	
				9				2
	8		5			6	3	4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구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41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15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PS5

CAPCOM



DRAGON'S DOGMA III

절찬 판매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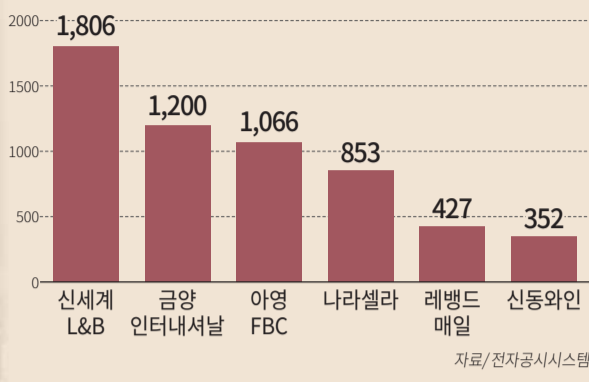
엔데믹에 줄줄이 적자... 시름하는 와인업계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2023년 주요와인 수입사 매출 단위: 억원



민와인' 몬테스를 수입하는 나라셀라는 작년 매출액 853억2500만원으로 업계 4위다. 전년 대비 20% 감소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98% 급감한 1억9600만원이며, 15억5900만원 손실을 냈다.

나라셀라는 "엔데믹 이후 경기침체, 홈술(Home+술) 감소에 따른 국내 와인시장 수요 감소로 인해 매출이 줄었다"며 "영업이익은 수요감소에 따른 판가 하락과 환율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고 실적 부진을 설명했다. 다만 향후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나라셀라는 "최근 엔데믹 이후 MZ세대를 중심으로 위스키와 맥주 등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가해 시장 성장률이 다소 정체됐지만 2022년 기준 한국의 인당 와인소비량은 1.9병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며 "향후 성장에 대한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레뱅드매일의 작년 실적은 매출 427억 1100만원, 영업손실 24억5800만원, 순손실 27억8500만원이다. 신동와인은 작년 매출 352억2100만원, 영업손실 4억6300만원, 순손실 8800만원이다.

/smahnl@metroseoul.co.kr

산이 높았던 만큼 골도 깊었다. 팬데믹이 몰고온 와인 열풍이 지나가니 우후죽순 생겼던 와인바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수입업자들은 쌓인 재고를 털어내기도 힘든 상황이 됐다. 줄어든 소비도 소비지만 환율은 치솟고 인플레이션 타격까지 겹쳤다. 대형사들도 매출이 줄어든 것은 기본이고 적자로 돌아선 곳들도 속속 나왔다. 작년은 공격이 아닌 방어가 관건인 한 해였던 셈이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와인 수입사들의 작년 성적표가 공개됐다. 와인을 팔긴 팔았는데 남는게 별로 없었다. 아니 손해를 보면서 팔기도 했다. 매출은 적당히 방어했는데 적자를 낸 걸 보면 말이다. 세상에 3대 거짓말 중 하나가 장사꾼이 "말지고 판다"라고 하던데 국내 와인 시장은 그걸 진실로 만들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와인 수입사 가운데 매출 1위는 신세계L&B로

1806억3500만원이다. 3년 만에 매출이 2000억원 아래로 다시 내려왔지만 이마트나 신세계백화점 등 관계사 매출 비중이 높아 그런지 10% 안팎 감소에 그쳤다.

그렇다고 실속까지 챙길 순 없었다. 영업이익은 2022년 116억3300만원에서 작년 7억 2200만원으로 급감했고, 당기순손실 53억 3700만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매출은 줄었는데 매출원가나 판매비는 크게 변동이 없었던 반면 비용은 오히려 더 늘면서다.

매출 2위는 칠레와인 '1865'를 수입하는 금양인터내셔널로 1200억7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감소폭은 15% 가량이다. 영업이익 56억8700만원, 순이익

43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0%씩 안팎으로 줄었지만 다른 수입사들 대비 양호했다. 금양인터내셔널 역시 매출원가와 판매비 부담이 있었지만 2022년과 달리 관계기업 투자이익 등 영업 외 이익이 도움이 됐다.

이탈리아 안티노리 와인을 수입하는 아영FBC 매출은 1066억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 줄었지만 1000억원대는 지켜냈다. 영업이익 30억4600만원, 순이익 34억 600만원으로 각각 63%, 19% 감소에 그쳤다. 지분법 이익 등 영업 외 수익이 방패막이 됐다.

와인 수입사 가운데 유일한 상장사로 '국

주말은 책과 함께

프랑스에서의 공연, 풍경, 사람의 기록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은 공연예술이론가 목정원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프랑스에 살면서,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두 해 반을 더 보내면서 품었던 이야기들을 다룬 책이다. 보았던 무대, 걸었던 풍경, 만났던 사람, 못 지킨 죽음, 읽었던 말들과 불렀던 노래가 담겨 있다.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저자가 프랑스에 간 첫해 들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몸과 목소리 사용하기' 수업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가 수업을 하러 강의실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책상과 의자를 치워 공간을 비운 뒤, 그 장소를 인식하는 일이었다.

저자는 "가만히 서서 공간을 감각하는 일. 이제 곧 이야기가 변질, 나의 목소리가 울려나올 그곳. 이때 공간을 감각한다는 것은 그 공간 속에 존재하는 나를 잊지 않는 일이다"며 "내가 여기 있어" 그것을 느끼는 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학생들은 천천히 두리번거리며 공간 속을 걷다가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눈짓으로 인사하고, 아무와도 부딪치지 않은 채로 각자가 바닥에 보이지 않는 곡선을 그린다. 편재하는 공간을 몸으로 익히는 동안 그 속에서 무수히 많은 새로운 공간의 결들이 발생한다.

하염없이 공간을 걷던 사람들은 박수소리를 신호로 돌씩 짚지어 허공에서 눈길을 엮는다. 저자는 "서로의 눈만을 응시한 채 계속 걷는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선을 열어 주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
목정원 지음/아침달

변을 인지해야지만 누구와도 부딪치지 않을 수 있다. 응시하는 시야와 산만해지는 외연이 함께 춤춘다"며 "다시 박수소리가 들리면 다른 이와 짝을 이루고, 나를 둘러싼 보편과 특수가 끝없이 변화해간다"고 말한다.

하염없는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대처하는 몸의 감각을 익히며, 그는 외롭고 따뜻해진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자는 떠나기 위해, 혹은 무언가를 떠나보내기 위해 공간 속에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배웠다고. 만일 누군가 파리에서 무엇을 했냐고 묻는다면 공간 속에 서거나 앉거나 누워 세계를 전부 감각했으므로 어디로든 떠날 수 있는 몸을 마침내 연마할 수 있게 됐다 답하겠다고 그는 이야기한다.

188쪽. 1만8600원.
/김현정 기자 hjk1@

워크는 좌파가 아니다

'깨어 있으면(stay woke)' 좌파일까. 도덕철학자인 저자는 '워크(woke)'라는 낯선 수식어를 단 이들과 본래의 좌파는, 그들이 형성하고 실천으로 이끄는 지적 뿌리와 자원이 서로 다르기에 한데 묶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책은 워크의 실천과 담론의 밑바탕에 자리한 이론이 모든 좌파적 입장에서 핵심

이 되는 철학적 사상과 충돌한다는 데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부국주의가 아닌 보편주의의 지향, 정의와 권력의 확고한 구별, 진보의 가능성에 관한 강력한 믿음이 그것이다. 저자는 보편주의, 진보, 정의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워크는 좌파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296쪽. 1만9000원.

수전 니먼 지음/홍기빈 옮김/생각의힘



온라인 여론과 SNS

여론이란 무엇이고, 여론 지도자는 어떤 인물일까. 오늘날 온라인 여론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여론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온라인 여론과 SNS'는 이러한 질문들에 답을 주는 책이다.

책은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사회에서 온라인 여론이 조성되는 방식과, SNS를 비

롯한 소셜 미디어가 여론 형성 과정에서 공중에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지에 주목한다. 특히 한국 사회의 다원화된 여론 형성 주체와 소셜 미디어 상의 여론 형성 과정을 훑어본다. 저자는 여론의 허상을 꿰뚫고 디지털 사회에서 온라인 여론과 SNS의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여론의 실체를 분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68쪽. 2만원.

설진아 지음/컬처북



샤프 펜슬에 뭘 짓을 한 거야?

신정설 지음/지식노마드

공학 덕후인 저자의 눈에 샤프는 하나의 '세계'다. 샤프는 작고 좁은 몸통 안에서 특수하고 복잡한 여러 기능을 매끄럽게 구현해 낸다. 책은 샤프에 장착된 기능과 그 기계적 원리를 다룬다.

슬리브가 선단부 안으로 들어가는 슬라이딩 슬리브, 필기 시 샤프심이 자동 배출

되는 오토매틱 기능, 샤프심의 편마모를 방지하는 쿠루토토가 엔진, 샤프심 배출량을 조절하는 레귤레이터 기능, 금속 그림부의 미끄럼을 완화하는 널링(롤렛) 가공 등이 어떤 원리로 이뤄지는지 설명한다. 국내 최초 샤프 펜슬 탐구서.

496쪽. 2만5000원.



뉴스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더 강해진 美日동맹... "중패권·트럼프 당선 위기감이 양 정상 움직여"
▲미 중부군 사령관, 이스라엘과 이란 보복 공격 대비방안 논의 /사진 뉴시스

▲中언론 "한국 여당 총선실패로尹정부 레임덕 직면"
▲총선 결과 관련 日정부 "한국과 긴밀 의사소통"



▲3월 日 통화공급량 1596조엔·1.8% ↑ ... "사상 2번째 고수준"
▲유럽연합 의회, 불법이민 입국 막는 새 이민·귀화 조약 통과 /사진 뉴시스



“석가산 옆 비오톱서 피톤치드 ‘뽀뽀’... 자연 맛 좀 볼래?”

아파트의 미학(美學)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2차 그랑베뉴

도보 거리에 다울초·중학교 자리잡고
여가 누릴 청룡두천 수변공원 조성 중
최고 23층, 7개 동에 총 660가구 규모

최근 찾은 경기 파주시 다울동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2차 그랑베뉴’.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는 경의·중앙선 운정역 1번 출구에서 버스를 타고 약 30분 정도 걸렸다.

단지 인근에는 다울초·중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어 걸어서 갈 수 있었다. 주변에는 청룡두천 수변공원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완공 시 입주민이 질 높은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파주시 운정3지구 A10블록에 들어선 단지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3층, 7개동, 총 66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전용면적 별 분양 가구 수는 ▲59㎡ 172가구 ▲84㎡ 318가구 ▲104㎡ 170가구 등으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만 공급됐다.

아파트 정문에는 ‘풍경채’ 로고가 부각돼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신축 아파트에 걸맞게 멋스러운 외관을 뽐내고 있는 단지는 입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 전체를 지하화한 것이 눈에 띄었다.

시공사인 제일건설은 조망과 채광, 통풍을 고려해 전 세대를 판상형 남향 위주로 배치해 넉넉한 동간 거리를 확보했다. 지상에는 보행자를 고려해 자연과 어우러진 산책로를 조성,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 환경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전 세대에 드레스룸을 비롯해 일부 세대에는 알파룸, 팬트리도 함께 제공해 뛰어난 공간 활용성을 갖췄다”면서 “자동차로 20분이면 파주 LCD일반산업단지, 탄현국가산업단지, 축현1·2산업단지도 접근 가능해 직주근

접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지에는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2차 그랑베뉴’만의 조경이 눈에 띄었다. 단지 중앙에는 석가산이 설치됐다. 바람과 폭포의 물줄기, 소나무 등이 조화를 이루는 한 폭의 산수화와 같은 경관을 연출하고 있어 마치 자연 속 한가운데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바로 옆에는 티하우스가 조성돼 있었다.

단지 내 곳곳에는 깔끔한 느낌의 조경과 휴식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건강정원, 담소정원 등에는 자연과 어우러진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입주민이 테이블과 벤치가 앉아 담소와 휴식, 여유를 즐길 수 있다. 바쁜 일상에서 삶의 정지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은 자연의 풍요로움과 사람들의 만남을 제공해 줄 전망이다.

단지 중앙 석가산의 폭포 ‘산수화’ 같아 티하우스 마련... 곳곳에 조경·휴게공간 미피·오두막·도서관 모티브 놀이터 조성

커뮤니티 센터에는 입주민의 편리와 문화, 건강을 위한 피트니스클럽을 비롯해 맘스카페, 키즈카페, 입주민카페, 실내골프장,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돼 있었다.

단지 내에는 시립어린이집이 자리 잡고 있어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에게 좋은 여건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됐다. 어린이집 옆에는 정원을 모티브로 만든 ‘작은정원 놀이터’가 설치됐다.

이동 그림책 시리즈의 주인공 ‘미피’가 있는 ‘미피의 책방 놀이터’를 포함해 오두막, 도서관 등을 모티브로 만든 다양한 테마의 놀이터가 조성돼 있어 어린이에 대한 배려가 엿보였다.

단지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에 방점을 뒀다. 곤충과 새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새집과 돌무더기 등을 만들어 ‘육생 비오톱(인간과 동식물 같은 다양한 생물종의 공동 서식장소)’을 완성했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① 단지 내 석가산과 ② 산책로 모습. ③ 휴식 공간과 ④ 육생 비오톱, ⑤ 도서관 모티브로 만든 테마 놀이터와 ⑥ 미피의 책방 놀이터 ⑦ 단지 내 산책로와 ⑧ 휴식공간.



AMORE:CYCLE



유통업계
必환경·자원순환
가치소비 앞장
니



Life

삼성전자
상업용 디스플레이
15년 연속 1위
L2



“배달 대신 홈치킨”... 냉동 한계 넘은 단짠·바삭 매력에 ‘폭’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CJ제일제당 ‘고메 소바바치킨’

냉동치킨 시장 판도 뒤흔든 히트상품
론칭 8개월 만에 매출 500억 달성 ‘인기’
소비트렌드 변화로 냉동식품 지속성장

CJ제일제당의 ‘고메 소바바치킨’이 냉동치킨 시장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고메 소바바치킨(소스 바른 바삭한 치킨)’은 출시 6개월만에 누적 매출 300억원(소비자가 기준)을 돌파했으며, 8개월만에 매출 500억원을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CJ제일제당의 자사몰인 CJ더마켓을 기준으로 제품 1봉지의 정가가 1만900원인 점을 고려하면 대략 460만 여개가 팔린 것으로, 하루 평균 1만6850봉지, 1분마다 11개 이상이 팔린 셈이다.

이러한 매출 성장세는 K-푸드 세계화의 주역인 ‘비비고 왕교자’ 출시 후 첫 6개월 매출(110억원)보다 2.7배나 높은 성과로, 식품 업계에서도 오랜만에 탄생한 메가 히트 상품으로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식품업계에서는 출시 첫해 연매출이 100억원을 넘으면 ‘메가 히트 상품’으로 평가하는데, ‘고메 소바바치킨’은 론칭 8개월 만에 매출 500억원을 돌파한 것이다.

‘고메 소바바치킨’의 인기 요인으로는 단연 냉동치킨의 한계를 극복한 차별화된 맛 품질이 꼽힌다. ‘고메 소바바치킨’은 전문점과 동일하게 두 번 튀긴 닭고기에 CJ제일제당이 독자 개발한 ‘소스코팅’ 기술을 적용해 갓 튀긴 듯한 바삭함이 특징이다. 여기에 꿀을 더한 특제 간장소스로 구현한 ‘단짠’의 조화로운 맛 덕분에 지난해 4월 출시되자마자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최근 고물가 속 외식 부담이 커지면서 냉동치킨을 포함한 가공식품의 소비 트렌드가 밥반찬용에서 외식대체재로 진화했다는 점도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냉동치킨을 포함한 가공식품의 소비 트렌드가 외식대체재로 진화하는 가운데, 냉동치킨 시장도 지난해 연간 1558억원 규모로 지속 성장하는 추세다. 특히, ‘고메 소바바치킨’ 출시를 기점으로 23년 4~12월 시장 규모가 전년비 14% 증가하며 시장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고메 소바바치킨 소이허니’ 3종(순살·윙·봉)은 작년 4월 출시 후 누계 매출 540억원(24년 1월 소비자환산 기준)을 돌파했다.

고물가로 외식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대표 메뉴인 치킨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것은



▲고메 소바바치킨
▶고메 소바바치킨 양념

로 보인다. 조리 방법도 간단하다. 에어프라이어에 140도로 약 11분만 조리하면 돼 가정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CJ제일제당은 ‘고메 소바바치킨’의 인기에 힘입어 양념치킨 신제품 ‘고메 소바바치킨 양념’ 2종(순살·봉)을 지난해 출시했다. ‘단짠’의 조화로운 맛이 인상적이었던 소이허니 맛에 이어 ‘한국인의 소울푸드’이자 글로벌 K-푸드의 대세로 사랑받는 양념치킨 맛 신제품을 선보이며 ‘국민 치킨’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스코팅’ 기술로 갓 튀긴 듯한 바삭함 조화로운 단짠 맛에 조리 방법도 간단해 K-푸드 대세 ‘양념치킨 맛’ 신제품 선택 해외진출 위한 글로벌 생산기지 확보도

‘고메 소바바치킨 양념’ 역시 CJ제일제당의 차별화 기술인 ‘소스코팅 공법’을 적용해 소스를 얹고 균일하게 코팅하듯 입혔다. 냉동치킨 특유의 눅눅함을 없애 갓 튀긴 듯한 바삭함이 유지돼, 전문점 수준의 식감과 풍미를 집에서도 즐길 수 있다.

특히 매콤한 양념장에 꿀과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은



특제 양념소스로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매콤달콤한 양념치킨 맛을 구현했다. 또한, 인기 부위인 순살과 봉 등 2종으로 구성해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다.

CJ제일제당은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생산기지 확보도 추진중이다. ‘고메 소바바치킨’의 국내 성과에 힘입어 글로벌 전략제품(GSP) 중 하나인 치킨 카테고리를 만두의 뒤를 이을 차세대 K-푸드로 낙점하고,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고메 소바바치킨이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CJ제일제당의 핵심 기술로 구현한 차별화된 맛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통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소비자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CJ제일제당은 올해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초격차 역량 확보’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식품 부문은 ‘고메 소바바치킨’, ‘비비고 통새우만두’ 등을 이을 차별화된 제품을 계속 출시하는 한편, 주요 품목에 자원을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해외 식품 부문은 GSP, K-스트리트푸드를 앞세워 북미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프랑스·북유럽·동남아 할랄시장 등의 진출로 신영토 확장에 속도를 낸다.



▲고메 소바바치킨 3종, 고메 소바바치킨 양념 2종.

/CJ제일제당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포스트 장미란’ 역도 박혜정, 한국신 기록 뒤편 파리행 확정 /사진 뉴시스
▲‘황선홍호 합류 여부 관심’ 스톡 스트로크 배준호, 45분 출전...스완지에 패배

▲어깨 무거워진 류현진...팀 5연패 탈출·첫 승 재도전
▲프로축구 서울 이랜드, 17일 홈에서 FC서울과 ‘서울 дер비’



▲이정후, MLB 데뷔 후 첫 휴식...샌프란시스코는 연패 탈출
▲손흥민, 3번째 10골-10도움 달성 초읽기...13일 뉴캐슬 상대 /사진 뉴시스